朝鮮日報
夕刊
十四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月刊雜誌『朝光』(每月一回發行)
『女性』(上同)
『少年』(上同)

東亞 참기름 京城西本町 東亞製油所

日獨伊防共協定에 匈牙利國도參加

十三日正式으로聲明

【부다페스트十三日發同盟】匈牙利政府는 十三日 日獨伊防共協定에 參加하는 旨를 正式으로 聲明하얏다

獨政府當局談

【伯林十三日發同盟】過般來 匈牙利政府는 日獨伊防共協定에 參加키로 決定하고 十三日 獨逸政府當局으로부터 左와如히 發表되엿다

匈牙利政府는 防共協定參加에 關한 日獨伊三國의 招請을受諾하얏다 (寫眞은 호르티 匈攝政)

【羅馬十三日發同盟】羅馬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日獨伊三國의 駐匈牙利公使는 十三日午後 부다페스트 匈牙利政府에 對하야 防共協定에 參加하기를 勸誘, 同時에 匈牙利政府는 이를 應諾하는 旨를 三公使에게 回答하엿다

匈、防共參加와列國反響

歐洲政局均衡에 一大變化를招來

伊太利 【羅馬十三日發同盟】匈牙利政府가 十三日 日、獨、伊防共協定에 參加한것은 多年에亘하야 匈牙利의防共政策을 援助하여오던伊太利官邊에 多大한 好感을 주엇고 歐洲를 縱橫하는 防共陣營의成功은 一九三九年의 歐洲政局均衡에 벌써 一大變化를招來한것이라하야 그影響을 重視주엇다 即匈牙利의 防共協定參加가 東歐洲及발칸諸國에 重大한影響을 미치게할것은 必至만라로 此等諸國도急速히 伯林羅馬樞軸에接近하게되리라는것이 伊太利政界의 一致된觀測이다

米國은當然視

【紐育十三日發同盟】匈牙利의防共協定參加는 米國에서는 이미 豫期되엇던일이라하야 그러케큰注意를 惹起하지안헛다 匈牙利가 獨逸의勢力下에 잇는것은周知의事實이며 匈牙利政府今回의擧도 當然한發展이라고보는者가 一人이라도 逮捕되면 即時큰示쓰가되리만치 微微한것이다

獨逸 防共協定의 重大意義를認識

【伯林十三日發同盟】匈牙利의防共協定參加가 發表된此際 有力紙 베르리나·타게블래 三紙는 十三日紙上에 防共에關한 社說을揭載 匈牙利의 防共協定의意義를 强調 左와如히 述하엿다

今回 防共協定參加를 發表한 匈牙利는 一九一九年 볼쉐비즘煽動及 侵略政策에 對抗하야 決死的鬪爭을 開始한 最初의國家다 防共陣營에의 匈牙利參加는 單只 獨伊樞軸의 友邦으로서 取한 外交處置일뿐아니라 左와如한 匈牙利新政治哲學上의 基本的態度確立結果에서나온것이다 防共뿔럭은如何한 第三國에對하야도 敵을 삼는것이 아니다 全世界의 舊秩序가 反國家主義의否定的 勢力에 依하야 攻擊되고잇는 現在防共協定이야말로 世界에 現存하는 最重大한政治的存在임은 疑心할수업다 現在防共協定은 世界政治上最大의 것은 否定할수업다 瑞西外相모타氏는 昨年西歐洲諸國에 對하야 너무密接하게莫府와協力하는 非를指摘하고 볼쉐비즘이야말로 歐洲文明의 基礎가되는 一切의 原則及精神的所產을 否定하는것이라고 痛擊하엿다 그리고 遺憾은 모타氏와如한 誠實한 政治家뿐이아니라 例컨대 루米大統領도 共産主義와 싸우지안코 公然히 莫斯科에 加擔하기를表明하고 否定的要素가 優位를占하는것을 許與하고잇다 이것이 世界의 現情이바 新國家意識과 秩序에 覺醒된 諸國民이서로 提携하야 콤인테른의 破壞的勢力과 싸울決意를 堅固히한所以이다

佛國 "日獨伊樞軸에의 精神的제스추어"

【巴里十三日發同盟】匈牙利의防共協定參加에 關하야 佛蘭西政界에서는 最近의 匈牙利의 動向으로보아 當然한 合理的發展이라고 보고잇스나 去十日의 滿洲國承認에 繼續하야 이連發的의 防共協定參加의 實現에는 多少驚愕한 態度이다 但 匈牙利에는 共産勢力은 事實上 거의 問題가 안되므로 匈牙利의 協定參加는 單純히 日獨伊樞軸에 對한 精神的제스추어라하고 特히 차ー키洪外相의 訪獨前의 政治的準備工作이라 보고잇다

全體主義國家에 共感을當當表示 匈牙利全國民은大悅

【부다페스트十三日發同盟】匈牙利政府가 十三日防共協定參加를 發明한것은 匈牙利政界各方面의 歡迎하는바가 되어잇는바 特히 大戰直後共産革命의 쓴經驗을맛본一般國民은 모두匈牙利가 防共協定에 參加하야 日獨伊의防共陣營에 加入한것을 기뻐하고잇다 匈牙利今回의 擧는民主主義國과 全體主義國이 東南歐洲에서 激烈한 爭覇戰을 演하고잇는現在 匈牙利가 全體主義國에 對한 共感을堂堂히 示唆한것이라하야 注目된다 即匈牙利는大戰直後一九一八年以後에 革命이勃發 同十九年봄에는 匈牙利共産黨이 베라이의指導下에 一時共産政府를 樹立하엿스나마칠내擧國一致하야이를排擊 二十年 홀티提督의 執政就任以來 繼續하야 防共의 巨步를 進하고잇섯던바로 共産黨은 合法的存在를 禁止當코 最近에는 共産主義者가

天皇陛下

葉山御用邸에行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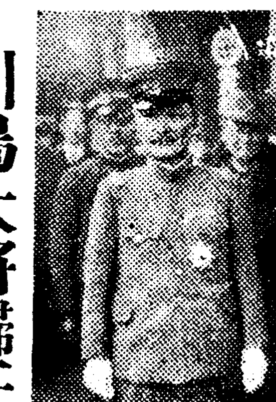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十四日 葉山御用邸에 行幸하옵섯다 事變下萬機 御多端에 亘하옵시는 陛下께옵서는 玉體의 御靜養을 爲하옵시와 議會休會中 今日부터 一週間 同御用邸에 御駐輦하옵시리라고 承聞된다 同日 陛下께옵서는 御軍裝도 御凜凜하옵시게 大勳位副章을 御佩用 百武侍從長御陪乘, 湯淺內府, 松平宮相, 宇佐美武官長以下御近等供奉 略式自動車鹵簿로 午前十時 宮城御出門 道筋에 堵列奉拜하는 市民에 惶恐하옵시게도 御目禮를 下賜하옵섯다 또 東京驛에서 皇太后陛下御使大谷大夫에賜謁 御饗筵을바드시옵고 其他의 皇族들을爲始 고마옵신 御附에 依하사 文武官等의 奉送도엇시 陛下께옵서는 同十時十分 宮廷列車로서 東京驛을御發車 同十一時十分 逗子驛御着車, 再次自動車를 乘用하옵시고 葉山御用邸에 御駐輦하시옵섯다

汪精衛에對한處分 黨籍剝奪로段落

國府態度和平色이濃厚

【香港十四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汪精衛에對한 處分問題는 黨籍除去로서 一段落이되고 自己의名義로 飛行機의 座席을 注文하야 秘密裡에 汪精衛를脫出케한理由에依하야 免職되기로 決定되엇던 敎育部次長 彭學沛는 그後中央黨務會議의決定을經由하야 釋放되어 現職에 그대로잇게되엇다 또 汪精衛와行動을가티한 陳公博 顧孟餘 陳璧君 徐民誼 周佛海等에對하야서도 此際에 何等追及하지안키로되엇다 右中央의 汪精衛派要人에對한 寬大한處置는 汪精衛의 和平主張은 單只廣汎한 資產階級, 인테리層華僑等의 機運을代表하엿슬뿐아니라 國民黨及國民政府部內에잇서서의 穩健派의意向과 相通하는것이잇서 抗戰派도이러한事情을 無視할수업는것으로보인다 그러고 武漢三鎭陷落後 抗戰一點만의 蔣介石의 機關紙大公報가 十二日의 社說로突然『吾人和戰觀』이라는題目下에 現在和平에對한 最大障碍는 日本側에 興亞의 大業을 擔當할만한人物이 업는것과 日本軍人의『日主中奴』의 優越感이다 只今萬若 日本軍人이 中國人을 尊敬하고 優越感을버리고 再次 征服思想을 抱懷하지 안는다면 兩國의休戰은 即時 成立할것이다 彼等의中國人尊敬의 一念이 兩國和平의 眞實한要素이다 하고 論한것은 從來의論評에對하야 相當한變化를 보인것으로 各方面에서 자못注目되고잇다

川島大將歸任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總裁 川島義之大將은 其間東京에 出張中이던바 十四日午後一時二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 官民多數의出迎裡에 歸任하엿다

히總統事態를憂慮 무首相의自重要望

一年은平和維持後目的貫徹하라

英伊會談과 PA의報道

【羅馬十三日發同盟】二日間에亘한 英伊會談에依하야 못솔리니首相의 牢固한 決意가 明白히되고 伊太利의 地中海政策은今後益益積極化하리라고 보이게되엇는데 十三日AP通信社羅馬支局의 確報로서 傳하는바에依하면 히틀러總統은 事態의 惡化를 憂慮하고 駐伊太利獨逸大使 맛켄지氏를通하야 爲先이 一年은 紛爭을 避하도록 못솔리니首相의 自重을要望하엿다한다 AP支局의 報道는左와갓다

맛켄지獨逸大使는 十二日夜챠노外相과 會見하고詳細하게英伊會談의 內容을 聽取한다음 即時그內容을 히틀러 總統에 報告한後 히틀러總統의 旨를 바더再次챠노外相을 訪問 爲先이 一年은 平和를 維持한然後 伊太利의 當然한 要求貫徹에 邁進하기 바란다는 히틀러 總統의意向을 傳達 못솔리니 首相의 自重을 要望하엿다 그리고 히틀러 總統이 右와如한 要望을 提示한것은 獨逸은現在 뮨헨會議當時以來의 對獨援助에 報酬하기爲하야 伊太利를 援助할만한準備가 업슴을 意味하는것이라고解釋된다

"友好政策은持續"

會談後英伊共同聲明

【羅馬十三日發同盟】英伊會談은 十二日의 第二次會談으로써 事實上終了되엿는데 駐伊英國大使館及伊太利外務省은 十三日會議結果에關하야 共同콤뮤니케를發表하엿다 共同콤뮤니케는 英伊兩國의 友好關係를 强調한 極히 抽象的인것으로 그內容은 다음과갓다

英伊兩國首相은 챠노伊外相及할리팍스英外相을 合하야 二日間에亘해 協議한바 席上現下의 重要問題及 英伊兩帝國의關係에 關하야 檢討하엿다 會談은 終始極히 友好的雰圍氣中에進行되고 서로誠意잇는 意見을交換하엿다 英伊雙方이 모두昨年四月의 協定締結의基礎가된 友好的精神에 基하야 兩國關係를 促進하려고 共通한意旨를 再確認하고 될수잇는대로 速히 英伊協定을 規定할 特殊協約을 締結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엿다 會談을通하야 兩國이 從來同樣 今後도 友好的인 平和持續을 目的으로하는 政策을 繼續하려는 兩國의 구든決心이 明白히되엿다

英兩巨頭十三日로 訪伊日程終了

【羅馬十三日發同盟】羅馬滯在中의 체임벌린英首相은 十三日午後에는 英國大使館의 晩餐會에出席하엿다 同晩餐會에는 챠노外相을爲始 伊太利政府 高官及各國大使도列席하야 歡談하엿다 一方체임벌린首相은 英伊會談을終了하고 餘裕綽綽히 十三日夜伊太利의"테르미니로"에서 스키次로出發하엿다 체임벌린, 할리팍스兩相은 十三日로써 訪伊日程을 終了하고 十四日午前할리팍스外相은 聯盟理事會가 開催되는 제네바로向하고 체임벌린首相은 一路歸國의途에 就할作定이다 할리팍스外相은 제네바에서佛國外相 몽네氏와만나 英伊會談의經過를 詳細히 報告하게될것이다

伊對英佛態度 益益冷却化

【羅馬十三日發同盟】英伊會談은 二日間으로 事實上 失敗에歸한바 十三日 伊太利各新聞은 멧사젤로紙以下 一齊히 佛國各紙가 伊太利軍隊를 侮辱한記事를 揭載한것을 指摘하고『伊太利軍人에여 이侮辱을 잇지마라』고 絶叫하며 또 西班牙에잇서서 過去一個月間의 伊太利義勇兵의 戰死傷者가 一千五百名以上에 達한다는 記事를揭載 佛國의 對伊敵對態度를 强調하야 佛國에 對한 敵意를 煽動하고잇다 이것은 十二日의 英伊第二次會談에서 佛伊問題에 關하야 체임벌린首相이 不明確한 態度를 示한데 對하야 伊太利側의 不滿한意를 表明한것이다 十二日夜會談終了後 國立劇場에서 擧行된 觀劇會의 空氣도 어데인지 쌀쌀한데가 잇섯다고 揶揄하는 新聞도잇서서 伊太利의 對英佛態度는 益益冷却化의 傾向을보이고잇다

伊軍續續集結 佛領(소말릴랜드)附近

【倫敦十三日發同盟】못솔리니 체임벌린兩首相의 英伊會談이 意見一致를 보지못하고 終了한此際 로이텔通信社 디브티特派員은 十三日伊太利軍隊의 佛領소말릴랜드國境附近集結을 報하야 센세이숀을 惹起하고잇다 報道要旨는 左와갓다

伊太利軍隊는 目下에디오피아와佛領소말릴랜드國境인 다ー레자리로及 날트에 續續 集結中이다 그러고 此等伊太利軍隊中에는 精悍하기로有名한 에디오피아의 아쓰카리族에屬하는土人多數가 하랄附近으로부터 續續配屬編入되고잇서 注目된다

괌島防備强化는 極東에戰爭挑發

다米下院議員國防敎書攻擊

【華盛頓十三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의 國防特別敎書發表와同時에 괌島防備强化가 米國國防政策의 新展開에 照應하야 注目되는바 共和黨下院議員다ー딘氏는 十三日 괌島의防備强化는 極東에 進出하야 挑戰할것이라고 攻擊하고 다음과가티 述하엿다

此際괌島의 防備를 强化함은 極東에對하야 米國이 戰爭을 挑發하는것과가튼 暴擧다 米國이 米國만을 念頭에 두면 하와이諸島로써 國防의 前哨基地로 하면 足하다 그以上 西方에 國防基地를 求할 必要는업다 米國이 將來 어데까지라도 比律賓을擁護하려면 極東에잇서서 戰爭을準備하는수밧게업다

米、佛兩大使와會談 할리팍스英外相

【羅馬十三日發同盟】할리팍스英外相은 十三日午前 午後二回에亘하야 英國大使館에서 佛國大使퐁세氏, 米國大使필립스氏를 引見하고 會談하엿다 할리팍스外相은 十一、十二兩日에亘하야 체임벌린、못솔리니 英伊兩首相間에行한 會談內容을 詳細히報告하고 何事인지 協議한模樣이다

"支那와極東運命은 英米態度如何에 援蔣은只今이最好期"

國府要人・外國記者團에게泣訴

【上海十三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國府外交部某要人은 十三日 外人記者에게 對하야 英米兩國의 對蔣援助를要望 兩國에 泣訴하야 國府의 弱點을 暴露하엿다

支那의 運命과 極東의 將來가 如何히 될것인가는 英米의態度如何에 달렷다 例컨대 英米兩國外交當事者는 歐洲問題에 注力하는 一方 極東情勢를 看過치 말기를 希望한다 또 萬若支那側에對하야 援助의必要를 認定할境遇에는 即時援蔣하여주기를 希望한다 對蔣援助의 內容에 對하야 말하면 法幣에對한 援助가 第一必要한바로 對蔣援助는 爲先에서부터 出發할것이다 現在와가티 戰鬪가 一段落을 告한時期가 支那에게는 가장危險한 時期다 援助하려면 只今이야말로 最好의時期다

日滿支經濟提携에 常置機關을設置?

今後의推移는極注目

【東京電話同盟】東亞經濟懇談會確立에 關하야는 過般에 開催되엇던日滿支經濟懇談會는 첫試驗이엿슴에도 不拘하고 多大한效果를 거두엇스므로 이를機會로三國經濟人의 손에依한 日滿支經濟提携에 關한 常設機關設置案이 最近關係方面에서 熱望되고잇다 東亞經濟委員會를 設置하고 大陸經濟의 本格的行動에着手한 日本商工會議所로서는 伍堂會長이 前記日滿支經濟懇談會의 東京懇談會長으로 重要한 役割을 하며 또 現在日滿實業協會會長인 地位에서 實情에 基하야 東亞新事態에 即應할 新機關設置에 特히 關心을 보여 過般來 伍堂會長을中心으로 銳意具體案을 講究하던바 이미 伍堂會長으로서는 來十八日에 開催할 日商常議員會及 同日의 日滿實業協會役員會에서 各其同問題를 議題에 供할意向으로 觀測된다 그리고 此種三國間의 常置機關으로서는 日滿、日華兩實業協會와가튼 既存團體의 自發的解散에依하야 新機關을創設하든지 或은此等既存團體를 母體로 新機關을 構成하든가의 二個의 境遇가 豫想되는바 如何間 新機關의 誕生은 必至의 形勢로 今後의 推移는 注目된다

時事雜說

우크라이나

獨逸의 東進政策이 날로 表面化함에 따라 차츰「우크라이나」가 世人의關心을 모으고잇다 昨年末 이地方의몇人 라즈모스키氏가 不遠[illegible]下에 獨立宣言을 發하얏이 잇서거니와 이地方이 眞正 獨立한다고하면 [illegible]政權은 크게 打擊을 맛는것이오 또 獨逸로서는 明然히 東進政策을强化하야 어떤方法으로든지 이地方을 支配코저하고 잇스므로 [illegible]의將來는 매우注目되는바이다。

◇

[illegible]의地方우크라이나는 東[illegible]에 [illegible]하는 小露西亞[illegible]의西南[illegible]를차지한곳으로 東에는大[illegible] 北으로는 白露西亞 西北은 波蘭, 西南은루마니아[illegible]黑海와아조프海에 面하야잇고 面積은四五一、六三〇平方粁 人口는 三千九百餘萬人 人口密度는 一平粁에六四、三人으로 [illegible]聯邦中最大의 密度를 가지곳이다 그리고 住民은 八〇%까지가 東[illegible]民族에 屬하는 小露西亞人(우크라이나人)大露西亞人九% 猶太人五% 獨人一%에 몰다비아人도 一% 其外는 希臘人 불가리야人 白露西亞人 타타르人의 順序이다 沿革으로 말하면 일즉은 波蘭領이다가 [illegible]領에 倂合, 一九一五年 [illegible]西亞帝政이 瓦解되고 一九二二年 勞農露西亞가 [illegible]되자 聯邦으로서 이에加盟하야 今日에일으럿다。

佐藤軍醫少佐 名譽의戰死

【南京十三日發同盟】[illegible]部隊의 佐藤軍醫少佐(熊本市)는 一月二日부터 三日間에亘한 [illegible]附近의 [illegible]戰의際 四日同地西北方大키로 [illegible]附近에서 三次 優勢한 敵襲을바더 一回 二回는 約二十名의 部下와가터突擊 擊退하엿스나 三回째는 來敵에 突入하야 胸部 腹部에數彈을바더 壯烈한 戰死를하엿다

松本慶北內務部長別世

慶尙北道內務部長松本三郞氏는 數年前부터宿病으로健康이 조치못하야 最近數日前부터는 療養에專力中日來病勢沈重하야 十四日午前五時四十分드디어 別世하엿다

八面鋒

兩國의 意見不一致로 英伊會談 마침내 中斷되엇다고。

◇英國을 마치 伊太利의 청지기가티 佛蘭西가서 심부름을 하라니 英國이 그런 일까지 할수잇나?

◇太平洋과 大西洋을 同時에 防衛할 大海軍은 不必要하다고 리米海軍作戰部長 言明。

◇歐洲와 極東과 同時에 戰爭치 안흘 自信이 잇고야할 말인데 그 權限도 軍人에게 잇는가?

◇米大統領 敎書에 보면 四萬五千噸級 戰艦二隻 飛行機萬臺를 建造한다니 戰爭은 不可避로 생각하는 모양。

◇그러나 파나마運河가 마음대로 안되니 一種髀肉之歎。

◇探鑛會社를 만들어 조흔것을 發見하면 國家自身이 經營한다고。

◇國家에 金만히 생기고 民間에 富者 만히 생기는 法을 쓰면 나야말로 善政、富國强兵之策。

辭令

總督府技師兼總督府道技師 町田久壽男
免本官 專任總督府道技師 命京畿道在勤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寶珠山幸助
陞敍高等官五等
總督府鐵道局技師 佐佐木秀綱
總督府道技師 松井稱二郞
依願免本官(各通)

004427

眼病專門內服良藥 청명관이 療法說明書無代進呈 進光堂本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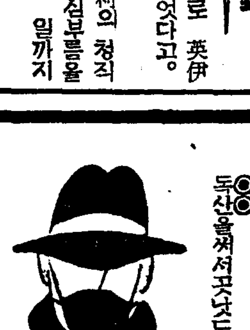
果樹苗木 謄寫版 無代進呈 東邦特産貿易社種苗部 電話長三二七番

ヤマハ手風琴

發賣元 日本樂器會社 京城本町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 神經科 內科 專門 李重澈醫院 入院室完備 醫學博士 李重澈 電光二一四〇番

謝禮廣告
弊商會客月中旬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 鍾路代理店(京城府鍾路三丁目 東城商會)의 勸誘로 商品一切과建物을 右會社保險(金壹萬九千五百圓也)에 加入하엿든바 契約後二十餘日에 不幸히 火災를當하야 全燒하엿는데 即時로 該保險金을 親切迅速히 支拂하시와 少毫도 損害가 無하게되엿음은 感謝萬萬이옵기 玆에 紙上을 通하와 謝意를 表하나이다
昭和十四年一月十一日
全北茂州郡茂州面 德慶永 孔慶豪 白
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 殿
同 鍾路代理店(東一商會) 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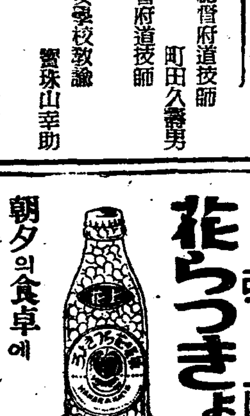
感氣直効 네오敗毒散 네오敗毒散錠

◎감기는 만병의 원인이오니, 만일감기에 걸니면 즉시 네오패독산을써서 곳낫도록하십시요!!
定價金 二十錢 五十錢 一圓
發賣元 三省聯合新藥硏究所 京城府貫鐵町一六一 振替京城一三九二七番 電話光化門八二三番

頭痛藥 테ー리ン 旅行・疲勞에테ー리ン 이하잉의

定價 二十包入 四十包入 七十包入 十錢 二十錢 三十五錢
東京小石川區武島町 製造發賣元 中村信治商店
朝鮮總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全鮮各地藥店에잇슴

회충구제량약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산토니닌 珊篤尼涅菓子)
무서운蛔虫卵을 驅除합시다! 蛔虫卵은 每日食用하는 野菜김치等에附着하야 人體內에 드러가서 體內에生長하면서 發熱腹痛嘔吐貧血夜泣等其他 各種病의 原因이됩니다 特히 小兒는 蛔虫에 걸리기쉬운故로 每週日曜日에는 예전부터 信用잇고 잘듯는 印岩崎大海堂세멘菓子를 服用시켜서 어서운 蛔虫을 驅除하고 애기네를 健康하게 길러주십시요
類似品잇스니 商標에注意
本舖 大阪天王寺 合名會社 岩崎大海堂

書籍目錄 無代進呈 辭書法律化學工業受驗就職農業衛生修養娛樂其他圖書何でもありハガキ申込次第送呈 大阪市東淀川局區內 國民書院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朝夕의食卓에 消化를도읍고 食慾을增進함 各百貨店及食料品店에有함

生徒募集 京城工科學院 測量科 鑛山科 百名 百名 ◎出願 ◎考査 昭和十四年二月七日까지 同年同月八日 測量科 鑛山科 (六個月卒業 一個年卒業) 學則請求 要三錢切手 京城府蓮建町一九五 電光一七三番 (元京城測量技術講習所)

豫約募集 醫師試驗問題解答集 申込期日 一月三十日迄 內容見本 要三錢切手 平壤府館後里一七一 箕城醫講出版部發行

天安支局 電話開通 二二三番

OKEH 오케레코드 히트傑作盤
新民謠 꼴망태목동 李花子
流行歌 눈물의春情 [illegible]
映畵「無情」主題歌 無情 崔南鏞
流行歌 꼬집힌풋사랑 南仁樹
流行歌 눈물의國境 金貞九
李蘭影傑作集 李蘭影
流行歌 男裝美人 張世貞
流行歌 無情海峽 [illegible]南紅

人夫牛馬와自動車 徵發의準備를命令

必要한때는언제나目的대로需給토록 整備與否를隨時檢閱

徵發事務細則 今日實施

전시체제는 바야흐로장기전으로 개편하는 중이나 시국이 비상한것만큼은 점차중대성을더하고 잇스므로 총독부에서는 자동차, 마차, 직공, 마필(馬匹)우차(牛車)、소(牛) 직공인부 등의 징발(徵發)의준비에 대한전반적사무세측을제정하여 십사일부터 실시하기로되엿다

그내용의 대개를보면 시국이 점차중대함에따러 전기의 우, 마차, 자동차, 직공인부등의 수급을원활히하는것은 절대필요한것이므로 이에대한 징발세측을제정하야 어제든지 징발을 요하는경우에는 조금도지장이 업도록하게되는것이엇다 그중에도 특히 주목되는것은 자동차, 우차, 마차, 소(牛)、말(馬)등의 징발인데 이번령은 전문팔십칠조의 대법령으로 자동차, 우차, 마차, 소, 말등에 대하야는 소관각관공서에서 임시 또는 정기로징발원부를작성하야두고 검사하고 또는사령관, 사단장은 관계각관공서에대하야 임시 또는 정기로징발의정비 여부를검열하기로되엇다 이징발은 전시체제하에는 어제든지 행할수잇는것이나 그대상물이 업거나흑은파상한것이면 아무리만히잇드래도 하등소용이업스므로 이번에 조선총독의자격으로서 그준비를명령할수잇는법령을 제하야 전시군비에대한 징발력(徵發力)을 강화하게된것인데 이법령범위안에잇는 물건 또는 인원은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징발하야 필요목적지에 출동시킬수가잇는것이다

最高一年半의體刑과 罰金二百五十萬圓

檢事、두時間에亘한論告峻烈

今日 石福德力事件求刑

석복(石福)덕력(德力)양대 지금상의 금괴유백오십만 일천만원 만여수사건 제칠회 공판은 십사일 경성지방법원 대법정에서 황권(荒卷)재판장주심 송전(松前)검사입회하에 열렷다 이날은 기보한바와가티 피고십육명에게대한 송전검사로부터의구형이잇섯는데 오전열시부터 정오까지 두시간에걸친 논고를하엿스며 각피고에대한 구형결과는 다음과갓다 이것의 합계를보면 징역일년을 최고로 전부의징역이 십일년오월이고 벌금의 총계는 이백오십만원 삼천이백삼십륙원이다 또한 이사건의 언도는 구두변론이 끗난후에 되겟스므로 며칠 뒤가될것으로 보인다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 石福鑛業專務 高木 文敎 懲役一年三月 罰金五萬四千九百二十七圓六錢
▲同上初音町一三五 石福鑛業社員 佐藤 重治 懲役六月
▲同上笠井町一四一의二 同上 片山 明 無罪
▲同上黃金町一丁目四五 同上 趙 炳 均 無罪
▲東京市下谷區練塀町七六 金銀地金商 石福恒三郎 懲役一年六月
▲京城府明治町一丁目五九 金銀地金商(德力專務) 山田 晃 罰金十七萬二千四百十圓 懲役一年六月
▲同上 永樂町二丁目六三 德力社員 水野 三郎 懲役十月
▲同上 南山町二丁目四五 小室 敏 懲役十月
▲同上 大和町二丁目二九 德力社員 北崎 三二 懲役十月
▲同上 黃金町四丁目三〇六 德力社員 野澤錦次郎 懲役十月
▲同上 東四軒町四九 德力社員 西田 豊記 懲役八月
▲同上 並木町一一〇 金地金商 金 永 長 懲役一年
▲同上 西大門町一一 石福社員 尾島 俊樓 懲役六月
▲石川縣金澤市殿町二八 石福社員 山田 賢二 懲役六月
▲京城府明治町一丁目五九 德力代表社員 山本 誠一 罰金二二七萬五八九九圓
▲愛媛縣越智郡近花村字大町 今村 德一 懲役八月

요만罰金으론 겨정업는兩會社

被告中二名만이無罪

별항=석복, 덕력양대지금상의 외국위체관리법위반사건의 구형을보면 피고들의 오개년간 범죄사실중 일부는 공소(公訴)시효가 완성되엿다하고 시효가완성되지안흔 부분에 대하야서만 별항과가튼 구형을하엿다 인데 십육명중 재형이 열세명 벌금구형만 바든것이 두명이고 무죄논고를 바든것이 두명으로 무죄논고를 바든 편산명(片山明)과 조병균(趙丙均)은 최면이 사기로 되여잇서 이들은 금속에다가 은을 석거서 순금아닌것을 속인것이라하나 증거불충분이고 방조는 시효가지나 무죄논고를 한것이다 구형과가티 벌금이 백오십만원의 언도가나리면 조선서 법률로현재기록을 짓게되는것이나 양회사로서는 이금액을 하여가 하고도 아프로 사업을 하여가는데는 별지장이업스리라고한다

소복히싸힌함박눈

소한(小寒)을 전후로그러캐도 극성스럽게차고 매웁던 겨울접어들면서 한번도제법눈가튼눈이나려보지못하더니 추위도 물러간채 석써여러날 오늘장안에는이나린다 한송이, 두송이혹은도리기는 새벽다섯시사십분부터 아침나절에는 제법함박눈이나려 오백년묵은 옛기와이나 새로행세하는벽돌집이나 모두희갓쓰고나무가지마다 흰꽃(大花)에웃고잇다 정오까지내린눈이 네미리, 서녁파밤에도 조금씩 그대로 내릴모양이다

나는 이화교를 영원히 살리

'決議'는泣從하나 學校는살리고가겟다'

東萊日新高女校長代理 瑪嘉禮孃談

濠洲長老派引退決議의反響

【慶南支社發】작보=호주장로파의 교육인퇴결의로 선교회 경영의 진동래(東萊) 일신고녀(日新高女)를 비롯하야 각지신여중소학교가 미구에 밋순회의경영에서 경남노회나 기타유력한조선인에게 인계되여 경영주권이 바뀌워질 운명에 봉착하얏다 관계각학교가 사회에서는 물론에 이사회를 열고잇슴회 총회결의를 중심으로 인계대책을 협의할모양이라하는데 이문제에 대하야 관계자들은 다음과 가티말한다

고저 만반의노력을 하겟습니다 밋순회총회에서 교육기관 경영에잇서 어떤근본방침을 세웟다면 차마 못할일이라 하드라도 그에따라 순종해가겟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문제로 역사기픈 일신여학교가 업서질리는 절대업겟습니다 그때에는 적당한후계자에게 인계되여 경영도대를 천년반석우에 노케될줄로 밋습니다 學校에 이사회를열고 조흔방법을 생각하겟습니다 거듭말할것은 선교회에서 경영을 부득이 못하게된다 할지라도이 학교가 업서지지안코 계속경영될것을 확언해둡니다(사진은 마가례교장)

"日新의歷史"를繼承

補助가끈허저도經營難은萬無 自信잇게말하는理事金萬一氏

밋순회총회에서 교육인퇴를결정햇다는말은 아직 정식으로는 듯지못햇스나 간접적으로 그러케 됏다는말을 들엇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손을뗀다할지라도 그기관을 인계할것도결의된모양이며 그러치 안타할지라도 우리는 역사기픈 일신고등녀학교를 인계경영할 자신과 능력을 가젓습니다 그러므로우리는 정식통지를밧고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겟습니다 여하간 연명친권의 보조가 중단된다고, 학교경영이 어려워지지 안흘것입니다 지금은 이 이상 더말할수업습니다

新堂町에僵屍

십사일아침 부내신당정(新堂町) 일백구십오번지 압길우에서 약 사십여세되여보이는 신원불명의 조선인남자한명의 변사체가잇는것을 동내사람이발견하고 동대문서에 신고해왓슴으로 동서에서는 경찰의를보내여검시중이다

都市計畫進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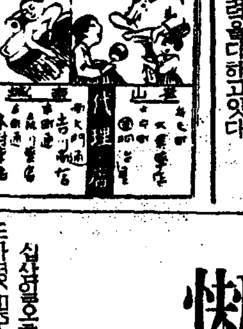
馬山、晋州를爲始、主要邑까지 廿九個都市의近代化

지난 소화구년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실시된이후 나진(羅津)을 필두로 지금까지 전조선의구개도시에 이법령을 적용하여 혹은 계획구역결정 또는 토지구획정리구역을 결정하고잇는터인데 총독부내무국에서는 금년에 들어서 부산 해주(海州) 청주(淸州) 광주(光州) 군산(群山) 진남포(鎭南浦) 전주(全州) 등 사개도시의 시가지계획을 결정발표하엿다 이에계속하야 근근자문안이 결정발표될것이 마산(馬山)과 진주(晋州)를 비롯하야 각주요읍(邑)까지 전조선의십개도시에 달할터인데 따라서금년중으로 전조선이십구개도시에 도시계획이 실시될터이다 지금까지에 이계획령이 적용된 이상 각도시중에 사실상 사업에 착수한곳은 나진(羅津) 청진(淸津) 함흥(咸興) 경성(京城)이나 비상시국에 처하야 재정파물자의 부족으로도 미착수의 각도시계획사업이 금후 당장진척은 되지못할지언정 적어도 계획만은 착착 완정해나가서 금후가능한 범위로 그실현을 기하야 약진조선의 각도시의 근대화에 매진하기로되엿다

國際麻藥密輸團

東署、妙齡의女團長을檢擧하고 殘黨捕盡코저大活動

묘령의 여자를 수괴로한 국제마약 밀수단이 동대문서에잡혓다=십일일 새벽두시경 시내동대문서 형사대가 종로오정목칠십번지에서 박순이(朴順伊)라는 여자한명을검거 준열한 취조를 계속중이데 사건의 내용인즉 전기 박순이는 작년유월 북지에서 조선에 드러온후 현재천진(天津)에 체재중인 남편김모(金某)와연락 부하다수를 거느리고『헤로인』『코까인』 아편등 각종마약의 밀수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는데 동서에서는 가렴수색의결과 마약다수와 약저울등을 압수하는한편 방금 공범을잡기에 전력을다하고잇다



慘난自動車

斷崖에서굴러떠러저 昨夕、京春街道의事故

십삼일오후세시삼십분경 경기도가평(加平)군에서 삼키로가량 되는 경춘가도(京春街道)에서 때마침 춘천(春川)을떠나 가평으로향하고잇던 경춘자동차소유 경(京)칠천오백호를 운전수윤길병(尹吉炳)이가 운전하고가다가 바른편차바퀴가 웅덩이에 빠지자 운전수는놀라 견김에한틀을반대편으로잡어제처 이때문에 차는벼랑에서 굴러떠러저전복되엇다 현장은 북한강(北漢江)을 끼고도는 사십척이되는 벼랑인데 기적적으로 운전수는 손까락하나도 다치지안핫고 운전대에가티타던 가평군가평면상일리(加平面上色里) 오정환(吳正煥)은 일주일이라는 예상외의경상을 입엇슴을 따르이엿다

市內事故二件

▲십사일 오전 시반경 부내 장곡천정(長谷川町) 경성택시 운전수 이○○이 운전하는 경제구천삼백오십칠호 자동차는 남대문통을 실고 상업은행압 로—타리 회단선을 회단하다가 경전이백구호전차에 치어 대파되엿스나 다행이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안핫다 ▲십사일밤 열시반경 본정사목 『다루마』 택시운전수 김호철(金浩喆)이 운전하는 경제구천이백오호자동차는 황금정 오정목에서 사정목을 향하야 오정목에서 사정목을 향하던중 제구천이백오호자동차와 충돌하엿다

病괴로위죽고 홍정업서죽고

▲십사일 오후네시경 부내창신정(昌信町)이백삼십팔번지의이호 오옥연(吳玉姸)이가 집사람들의 눈을피하여 자택온돌방모자걸개에다가 허리띠로 목을매고 자살하엿는데 원인은 질병으로 세상을비관한것이라 고한다 ▲십삼일밤 부내연지정(蓮池町)이백삼○번지 과일상 신동목(申東睦)이가 양재물을먹고 신음하는것을 옥모 최씨(崔氏)가보고 종로사정목 천호당(天湖堂)의원에 다려갓는데 생명이위독하다 원인은 동대문시장에서 과일가게를경영하고 잇섯다가 영업이 잘되지안허 이를비관한것이다

旗 宇田旗店 京城金山本町 電二二六七 二三九

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兒童劇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七時三〇分 講演 ▲八時 歌謠曲 ▲八時三〇分 라디오小說 ▲九時 歌詞 ▲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第一放送 ▲午後六時(大)童話 ▲六時二五分 講演 ▲七時 ▲七時四〇分(東) 舞臺劇 ▲八時三五分(大) 詩歌 ▲九時五分(東) 講演

大氣豫報

概況 黃海北部와 鬱陵島部에잇고 高氣壓은 滿洲北部에서 北支那로 퍼지고 于島方面에도 氣壓이 얏다 朝鮮은 高氣壓이고 中部以北에는 淨雪이잇고 滿洲는 大概개인편이다 裏日本은 降雪이잇지만 表日本은 天氣가 조타

豫報 今夜는흐리고小雪이잇고 明日은흐린後개이다
昨日最高 零下十二度 同日最低 零下十四度 十四日正午 零下一度七五

一日一想

해몽(解夢)한다 고하야 지나간 일을 그대로 말하거나 또 이러고 저러고 이론을부처서현실(現實)에 인연을 부처가지고 새로운날에 어떤일이 닥처올것이나 하는것을 예측하는것▲생각하면 숙스러운일이기도하다 그날그날에 할일이잇고 해야할 일을열심히 생각하고 잇는사람이라면 꿈결에 나라나는 어떤 그림자때문에 마음을 써여가며 궁리를 거듭할여지가 업슬것을 ▲한일업는 사람이길래 떠가는 가을날 구름의 그림자가튼 꿈에얽혀가지고 제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제일흡을전시키지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옛날일엇던한가 한사람들의 딴공리하던버릇의 유물이다▲그러나 꿈은꿈이라하되 역시사람이생시에보고듯고 생각하던 어느것이 참말꿈결가티꿈에나타나는것인데 옛날성인의말슴에 세상의 모든일이 다 도(道)에 통햇스되 꿈만은 마음(도)대로 안된다고 한탄한바도 잇다▲이러케 생각하면 생시의 일을 충실히 하기위하야 꿈도 긔롤 하로세번아니고 설혹세번 반성하고도 아직부족이 잇슬까하야 꿈에나타나는일 까지라도 잘못이업도록 통제하려는것이라 고한다면 그분의가 극히고상한 데잇서습을 미련한우리창생들로 짐작할수 잇는것이다 이만큼된일이다▲사람들기

全氷上大會前記 ①

우리의活舞臺! 霧峰山麓鏡海링크는

이번大會에朝鮮選手十七名參戰

明大氷上部主將 張日弘記

【上諏訪에서】 어느 死던하야온 光輝잇는 氷跡을남겻는 第十回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는 來十七日과 十八日의兩日間 信州霧峰山麓 鏡海링크에서 壯快한 激戰이 展開될터인데 우리의先輩인 金正淵、李聖德、崔龍振 三選手가 번가라가며 五年間 栄譽의選手權을 차지하고 全國의 氷上健兒를 놀라게하던 明大氷上部主將張日弘君統率하에 朝鮮에 와서 焦燥속에 싸움의날을 기다리고잇다 大會期日이 追頭함을따라 各地의 選手들이 어곳으로 參集하고잇는데 朝鮮出身 選手만도 다음과가티 十七名에 達하야잇스며 各自의 目標하는 곳은 오직 世界記錄에의挑戰이다 이에簡單한 豫想記를抄하야 鄕里에잇는 氷上愛好者에게 바치려한다 (寫眞은 張日弘君)

◇…=…(咸興) 李明天(敬文) 許貴 …日(平壤) 金寬植(新義州) 任東英(新義州東中) 金河吉(松都中學)
◇明大=張翰植 安重熙 崔英洙 李仁源 尹寬植 金永俊 鄭英燦 朴性用 張日弘
◇早大=金秉玉

第一日에行할 五百米레ー스는 大會의興味를 集中할 豪華版임에틀림이 업슬것이다 昨年의覇者 崔龍振選手가 學窓生活을 떠나서의 첫舞臺인 만치 相當한 豫想도잇스나 學生軍에게比하야 練習量이 不足한데 一抹의暗雲이떠돈다 그러나 五百米에 全力을集注할 選手에게 보내는期待는 크다 崔選手의 四十三秒六에 肉迫할 者로는 早大의新人 山下君이 잇스니 君은 지난學生大會에 百一이란 스코ー어를 살리는走法으로 五百米를 四十四秒九에 走破한뒤이라 僅少한差로 二着이된 崔英洙君等 前記二人의 五百米爭霸는 豫想을 許치안흐며 以外에도 優勝圈內에 들만한選手는 高林(明大) 南洞(早大) 中村(早大)等의 스프린터ー들이잇서 자못 注目된다

第一日의 五千米는 長距離의 第一人者 張翰植(明大)君의 王座는 움숙이지안흘것이나 朝鮮代表 金漢泉君의 追擊戰이 볼만할것이다 지난 學生大會에서 一秒九의差로 張君에게 버금가는 第二位를 占한 長身尹寬植(明大)君의 存在는 儼然하다아니할수업스며 이大會의 規定上選手權順位에 들려면 全種目을 滑走하여야하므로 早大의中樞南洞兩君의 進出이 注目되며 滿洲의 朴潤哲君等의 不參加는 寂寥의 感이업지안흐나 明大의安重熙、李仁源、崔英洙、泉山、金永俊等 平壤中學級인 岡谷工業의 古嚴君 松都中學의 金河吉、敬文中學의 李明天、新義州의 金健會、新義州東中의任東英君等이잇서 第一日의 五百米와 五千米가 끗나기前에는 今年度選手權의 歸趨는 豫測할수업슬것이다(續)

硏武館記念式

朝鮮硏武館創立七週年記念日이 來十七日이므로 이날은 同館創立員一同의 懇親會를 同日午後七時부터 열기로되엿다 하며 今年度冒寒稽古는 來十九日로부터 二月十七日까지(約一個月間)同館에서 施行하기로되엿다한다

加奈陀籠球日本來征

【同盟밴쿠ー바十二日發】 올·카나다·아마츄어 籠球選手權을 保持한 밴쿠ー바ー의웨스타ー즈팀이 今夏日本에 遠征하야 各大學팀과 對戰할터이라한다

運動界人事·集會

▲崔得俊君(普專籠球部主將 北島遠征中) 十二日 平壤府大寮里六四番地 鄕第에서 遭外艱

SINKO PHARM & CO SEOUL KOREA

淋疾不可恐!!

淋疾患者完治記錄樹立!

數個月間完治者數萬을突破

本社는 世間에서 大大的으로 떠들고잇는 SO2NH2基라는 藥을一層改良하야 SO2NH2基二個를 化學的으로 結合시켜 其作用을 數倍强化시킨 サツタリム을 全日本은 勿論滿洲、支那等地에 一齊發賣한지 不過數個月만에 直接藥房이나各地 著名醫師先生의 處方으로 患者에게 投藥한結果 完治者數萬餘名을突破하야 이미 醫療界에끼친바 貢獻이크다고 完治患者로부터謝禮狀이踏至한다。

殺打淋 サツタリム

醫學博士 鄭權陽先生發表

本劑의主成分은 サルバルサン以後에처음보는 化學療法의 成功이요 一般球菌類에對하야 偉效를奏하며 特히急性淋疾及梅毒에 卓効를가지고잇다 從來의 製品即ズルフオンアミド基한個를가진것보다 이것을 두個含有한 本劑의主成分은 더한층 큰効果를期待할수잇다

特長

(1) 一日六錠이란 最大量을服用해도 絕對로副作用이업고治
(2) 特異成分에依한 赤褐黃色尿가나오며
(3) 速하면 二日 느저도 六七日後면 꼭낫고
(4) 不過十餘圓이면 完治되니 經濟上으로보아도最廉價이고
(5) 再發할憂慮가 殆無합니다
(6) 本劑는 梅毒에六〇六號나 マラリヤ(학질)에キニーネ(금계랍)와가티 淋疾에絕對特效가有합니다

看板을逆用하는自稱舶來品과 模造品에注意하시오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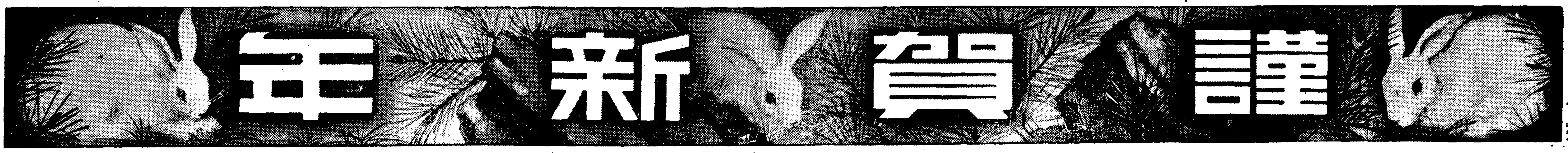
過去數年間パラアミノベンゼンスルフオンアミド製劑가 簇出하야 相當한 效果를 보앗는데 이제 前者보다 一層改良되야 SO_2NH_2基를 二基含有한 サツタリム을 使用하야본結果 急慢性淋疾은 勿論이고 其他各種腫氣 後髮際 走馬瘡等에 卓効잇슴에 驚嘆不已하얏다 今後醫療界에 큰貢獻을주리라고 確信하는바이다

$NH_2-\bigcirc-SO_2NH-\bigcirc-SO_2N\begin{smallmatrix}CH_3\\CH_3\end{smallmatrix}$

包裝
急性用 五圓
慢性用 十二圓
病院用 二十圓

總發賣元 新興製藥所 京城堅志町
代理店 新井藥房 京城·圖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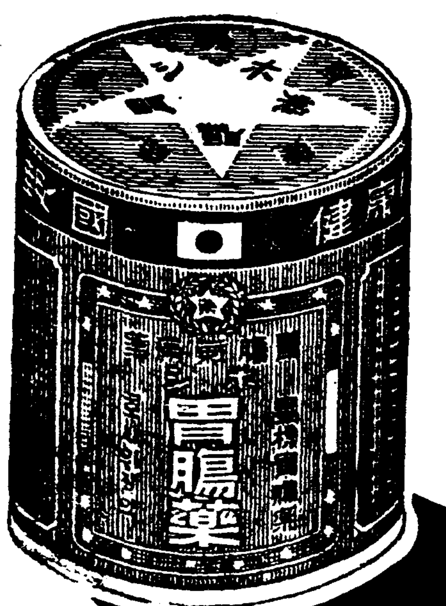
SINKO PHARM & CO SEOUL KOREA



ホシ胃腸藥
호시위장약

健康報國
"健康은胃腸부터

★胃腸만 튼튼하면 어떤病이던 가까이 오지 못한다
★元氣와精力이 湧出하는곳은 胃腸이다
★長壽法의秘訣도 更少年法도 胃腸의 强化로부터 始作한다
★모든에네르기의 總本營은胃腸이다 그러므로胃腸이튼튼하여야所期한바活動을할수잇는것이다
★이런所重한 胃腸을 튼튼어하는秘訣은 ホシ胃腸藥을服用하메限한다



004128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三圓 五圓

東京大崎
星製藥株式會社

퍽爽快한새로운貼付藥

トクホン
도구홍

神經痛류ー마치
肩臂痛筋肉過勞
打撲捻挫

貼付 하는것만으로조타。本藥中에配合된여러가지 貴重藥은 直刻으로 皮下 部에滲透하야病原의故障을 除去하고아프고결린것을 迅速快癒시깁니다 끈서거리지안코부친痕跡이남지안코使用感이爽快하므로大好評입니다。

二十錢부터……各地藥店에잇습니다 好評에따라模倣藥이續出하엿슴니다 사실때는 반드시トクホン이라指名하십시요。

東京市日本橋馬喰町
鈴木日本堂
振替東京七七三一番

희고생기잇는살결工作에

レオン洗顔クリーム
레온세안크림

겨울바람이차더라도
溫室花야아름답고
당신의빰은淸雅하다
어떤빗깔검은살깔이라도
레온의効果로샛하야케
나리는初雪의淡白한
고운매를가지게됩니다

レオン은 硫黃泉의美白、消菌作用强化한化學的美肌料입니다 即옛부터 코로에도硫黃을含有한 硫黃溫泉에오래동안 잠으면 꾀는듯 히고아름다운살깔이된다고합니다만 レオン은 이原理를應用하야 다서强化한 코로이드硫黃과高貴皮膚美養料를 多分히 含有하고잇스므로 그効力은 硫黃泉의比가아닙니다。

普通瓶 一圓四十錢

美容報國을爲하야
三割五分增量
德用新型發賣

從來의것보다內容을 三割五分增量하고品質을다시 嚴選한 新裝美麗箱入입니다。

有名化粧品店藥店에有함

特用新型・一圓五十錢
(普通型・一圓四十錢)

東京・神田 レオン商會

淺田飴
아사다아메

冷해서는不可!

추운바람……寒氣에부디치면反射的으로皮膚의血管이收縮하야 鼻、咽喉、氣管支가튼呼吸器、消化器의障害를이르켜서 感冒喘息、胃腸病、子宮病等에걸립니다 또乳幼兒가튼 皮膚의鍛鍊이 되지안흔사람은百日咳、痲疹가튼것을誘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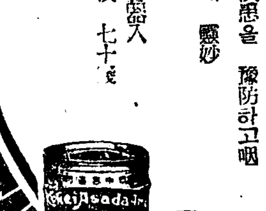
防寒의常備劑로써
淺田飴는最適!

淺田飴는 漢方大醫淺田宗伯先生이 宮中에奉仕할때 調進하신名方으로 其主劑인朝鮮人蔘은體力、精力의 强進劑로써 또는 體溫劑로서優秀한周知의貴藥이다 그리고 鎭咳呼吸器劑로서 歡迎의高級藥을 配合하엿스므로 이것을朝夕服用하면體軀의 末梢까지더워지며前條의病도治癒되며 或은이를豫防하야 치위에抵抗力을强化하며 疲勞를回復하고 精力을增進하는데特効잇다
(類似品有함淺田飴의名稱에注意)

固形淺田飴

固形淺田飴는 旅行、하이킹、스키ー、觀劇、事務、勉學等의 疲勞를恢復하야 精力을 增進하며 講演、放送、聲樂等一般大聲을發할境遇에 咽喉를 부드럽게하고 소리를조케한다。 其他사람모힌곳에서 使用하면感氣咳、呼吸器疾患을 豫防하고咽喉를保護하는데 靈妙

携帶容器入 定價 七十錢



主効
痰咳一切
感氣喘息
百日咳、肺炎
氣管支加答兒
病中病後
産前産後
一般虛弱症
咽喉아픈것
목쉰데

定價 •30、•50 •70 1•00 2•00
各藥店에有함

本舖 東京 大阪 門司 堀內伊太郎

家庭

알콜중독 도 낫게된다

◇그러타고함부로먹진말일◇

술도 중독이되면 안먹고는못백입니다。

세상엔 알콜ㅣ중독자가 참만습니다。매일이홉(二合)이상먹어서 십년이상계속한사람은 체질과 그밖게여러가지 관계로써 중증과경증의 차는잇슬지어정 거이전부가 알콜ㅣ중독자가 아닌사람이업습니다。

나히로보면 삼십세로부터 오십세사이가 제일심한데 알콜중독이라는것은 신경세포가운데 지방 즉 기름이 필요이상으로 남어잇서서 신경의활동을 둔하게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주상습자의 신경세포를보면 별도 이상한 증세가업는사람이라도 신경에 지방이 끼여잇습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몸을 떨고 헛소리를하거나 주정환각(酒精幻覺)이라고해서 알콜ㅣ중독특유의 병증을 이르키게됩니다 시끌흔노인네들에게 만히보는 중풍들린것처럼 수족을 쓰지못하고 말도 더듬게되는것이 모두 지독한 알콜ㅣ외 중독입니다。그리고 놀 칠을 흘리고 손발을 몹시떨고잇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한층더심하게되면 콜삭코ㅣ프씨 정신병이라고 일홈하는 순전한 정신병이되는데 이러케되면 치료하기가 석어렵게됩니다。

그리고 각금 웰르니켄의 뇌염(腦炎)을 이르켜서 죽는것입니다。

흔히 술을넘우먹어서 미치광이가 돼다고하는말을 듯는데 중독증상과 정신병파는 확실한구별이잇습니다。

주정중독의 증상은 아페서도 말한바와가티 몸을떨고 헛소리를하는것과 주정환각의 두가지인데 간단히 말하면 눈에 무어시 헛보이며 기분은 유쾌한것가트나 폐렴에 걸리기 쉬우니 주의해야합니다。

주정환각(酒精幻覺)이된 사람은 귀에 무어시 헛들리며 기분은 우울하고 자지도 안저잇지도못하고 가끔 폭행도하게됩니다。

그리고 장율닷자고 떰을쪼드며 또는 정신적으로는 도덕적판단이 대단히 박약하게됩니다。

어떤주정환각병자가 밤중에갑작이 자기집에 불을노아서 소동을 일으켯는데 정작 집웅에 목이 부르니까 그담엔 자기어머니가 라서죽는다고 달려드리가 업어내다가는 아예 개천에 처박어서 죽이일도잇섯습니다。

그러므로 알콜ㅣ중독자라고마음노코 내버려둘것은 못됩니다。

그런데 이와가튼 만성알콜ㅣ중독을 치료하는데는 먼저 술을 끈치안흐면 안되는데 중독의특성으로써 술기운을 끈흐면 곳 머리가 흐리멍텅해지고 행동이 활발하지못하고 적극적으로 고통을 느끼기때문에 의사에게 치[illegible]하면서도 몰래 술을먹게되며 좀체로 낫지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아탄에 자ㅣ겔씨에 의해서『인수린』주사가 알콜ㅣ중독에 효과가 잇는것을 알어냇습니다。

본태 주정중독자의게 수면제도 아무효과를내지못하는데 이주사를하즉 환자는 잠을잘자서 중독자로써의 가지가지의 고통을 모르고 치료가됩니다。

이주사로 치료하면 열에여들사람은 나흘수잇습니다。주사의 분량은 병증세에 따를것이나대체로 삼 사회ㅣ일주일이나 열흘동안이면 낫습니다。

주정중독뿐아니라 모르히네중독에도특 효력이잇습니다。

태교(胎敎)와 태아의위생

임신초기의영양관계로 아들도되고딸도된대요

① 城大講師 醫學博士 李甲洙

태교(胎敎)라하는것은 태내시대의 교육을의미한 태아의 교육입니다 인생일대에대한 현대교육계통을회고(回顧)하여보면 대학으로부터 유치원까지의 교육기관은 그 완비(完備)에 상당한 노력을하고잇으나 그 이하시대로 소급(遡及)하야 관찰하면 유아기에 교육에관한 문제도 등한시(等閑視)되어잇는 이시대에 잇어서 더!한층 지나서 태내시대(胎內時代)에잇는 이목구비도 아니생긴태아어리의 교육을운운하며 이태아의 위생을 운운한다하는것은 의반으로 파문(奇聞)에 속하는재인마치 실로 창창하고 또한소대수업는 문제와가티 생각이될것입니다 그러나 『전단(栴檀)은 쌍엽(雙葉)시대로부터 향기(香氣)가난다』는고어(古語)는 보통유아시대를 표준한것이아니고 종자중에 잇는쌍엽 즉 배태(胚胎)시대를 말한것을 알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초의 기본(基本)교육과 위생은 아동기즉 유아기(幼兒期)시대보다도 태아기즉 배태시대부터 시작하여야할것을 수긍(首肯)할것입니다그러므로 『아동기』에서 더 한층 소급(遡及)한 『태아기』의 위생과 태교에 관한문제가 오히려 의미깁습니다。

그러나 완전된 아동의 교육 그선도(善導)방법이 심난(甚難)함을 느끼고잇는데 미완성의 태아를 교육하고 위생을 잘ㅣ게하다는것은 일견 용이하일이 아닐것가트나 실상은 지극히 간단하다고 말할수잇습니다。

그러면 여하한 방법으로써 이러한미완성이고 또한 즉접교섭할수도업는 태내의아기를 어떠케 교육하며 위생을하야 주겟느냐? 이것을설명하자면 위선 태교의 원리(原理)를 먼저알지 아니하면 아니될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유전성(遺傳性)과『변이성』(變異性)과의 길항적(拮抗的)관게라고 하겟습니다 이것을 좀밝히고자한다。

유전성은 양친 또는 조상의 체질을 자손에게 전하는 성질인대 그것은 생식세포(生殖細胞)중에 함유(含有)한 유전물질의 작용에 인(因)한것입니다 이성질에따라서 친자(親子)간이 심히 상사(相似)되야잇는것입니다 타방면으로 이유전성에 대항(對抗)하면서 이것을파괴코자 하는것이잇습니다 이것이 즉『변이성』이라고 칭하는것입니다 이『변이성』은 외게(外界)로부터 오는것인대 물론 이것은 태아가 모체를통(通)하야 외게로서 오는 각종의자극(刺戟)과 제반조건(條件)을 즉접 흑은간접으로 바더서 변화되여가는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유전성과 교착적(交錯的)으로 조화되야 어떠한때에는 양적(陽的)으로 즉 조흔조건으로 진전(進展)도되며 어떠한때에는 음적(陰的)으로 즉 악상태로 퇴화(退化)도되는것입니다 즉 원래 천품(天稟)된유전성이 변이성으로인하야 누가(累加)흑은 상쇄(相殺) 되야서 버컨대 음파(音波) 의 간섭현상(干涉現象)과 가튼 경우가 발생되는것입니다。다시말하면 유전성과 변이성의 조화(調和)여하가 태교의 선도(善導)와 태아위생의 골자(骨子)라고 말할수잇습니다。

이변이성의 그중조흔조건으로 유려한것은 배태중에잇는 모체의 정신교육과 섭양(攝養)입니다 이것이 태교와 그의위생의중심이되여잇고 즉유전성과 변이성과의 관계를 이용하야 태아를 우량(優良)하게하는방법이 태교의 원리(原理)이며 태아의위생입니다。

스끼야끼 맛잇게하는비결

스끼야끼를 맛잇게 만드는비결을 말하겟습니다。

먼저 기름덩이를 녹이다음장국을 붓는데 겨우남비미치 저만치만 붓고 다음에 채소를 조금너코 고기는 한번에 먹을만침 조금씩 너코 전부한꺼번에 너흘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너머 한번뒤집어 양쪽이 다비치 변하거던 곳먹도록해야됩니다。

어쨋든 고기는 차츰 먹어가면서 넛는것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선 안됩니다 채소에서 물이 제절노나오니까요 물이 별우만흐면 고기人물이 빠저 맛이업습니다。

장국은 간장과 미원(味素)을 반씩섞고 설탕을 적당하게 타서씁니다。

長篇小說 愚氓 【203】

朴泰遠 作 洪祐伯 畵

姜君의活躍(1)

삼월 하순ㅡ 간밤에 비가 잠깐 뿌리고 오늘은 날이 활짝 든 오후다。

××신문사 편집국안 자기책상 아페가 사회부기자 강신호는 안자서 자리를 떠나 일부러 그곳까지 와 서잇는 편집국장과 동료 두어명을상대로이야기를 하고 잇섯다

「하여튼 그런 놈은 세상에다시 업슬겝니다。무어 극흉극악하다는 말쯤으로는 형용이 안되니까ㅡㅡ。물론 갑부며 교도며, 면명 부잡아다가만 노핫습니다만이지 워낙이 지독한 한놈이라 백백교의 죄상이 대체 어떠한 정도의 것인지아직은 적확하게 알길이 업는게지만 그놈들이 금전 사취하고 부녀 농욕한 이외에 적지안흔 인명까지를 살해하엿스리라는 것은 용이히 추측이 되는데……우선 교주놈의 어번 도주한 종적을 살펴 보드라도 검거풍이 불자 직시 제 첩하나를 데리고 양평으로 나려가 그곳에 잠깐 엿다가 다시 연천으로 떠낫는데 계집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거치장 스럽다고 목을 눌러 죽여버렷죠? 그리고연천으로 간놈이 그곳에잇는교도 조병걸이라나 하는 자의 집에 잇다가 조가의 자식놈의 입에서 호옥제 얘기가늘어날까 겁이나서 열일곱살먹은 큰딸을 위시하여 다섯살인가 먹은 망내둥이까지 도합 네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려ㅡ。물론 아이들뿐이 아니지 병걸이놈의 사촌누이라든가 그 여자마저 업새버리고는…」

강신호가 한참 열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럿슬때 잠잠히 듯고만 잇던 동료 하나이

「허지만 아무러기루서니…… ……」

하고 이의를 제출하여

「혼자서、다섯명의 목숨을그러케 한자리에서 모조리 죽여 업새는 도리가 잇슬라구ㅡ。전영호란 놈이 대체얼마나 대담하고、잔인하고、흉악한 놈인지는 모르지만、실제에 잇서서 말이야。다섯살 먹은 어린아이는 혹시 또 모르지만 조가의 누이라든, 열일곱이나 된 큰딸이라든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여자라도 상당한 저항이 잇섯슬것이고, 더구나 무주공처리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아무리 한적은 하드라도 동리사람들의 이목이라는게 잇는터에 그러케 감쪽가티 더구나 혼자서……」

강신호는 그동안 담배를 태우고 잇다가,

「혼자가 아니지 심복부하에심봉사란 자가 잇섯스니까」

「글세 설혹 부하한명의 손을 빌수 잇섯드래두, 도대체 그게 가능할 일일까?첫재 아이들의 예비되는 조병걸이란 놈도 잇는 터에……」

「아니지。그 조가놈이 잇스니까, 오히려 일하기가 편하엿징」

「조가놈이 잇스니까 일하기가 편하다니?」

이번에는, 편집국장이 한마디 의아스러이 뭇는것을, 강신호는 가장 득의면면하여 가지고,

「그러니까, 전영호가 심분사와 조병걸이 두자의 힘을 빌어 가지고 조가의 집 식구들을 살을 한게죠。」

「뭐ㅡㅡ?」

듯고 잇던 사람들은 잠시동안 어이업시 강신호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아무러기루서니, 그래 백배교 아니라 더 한것을 밋구잇다드라도, 당장 교주의 명령이라고, 제 자식의 목숨을 했는단 그럽 말이 어데 잇수?」

「글세 그러게 망신자(妄信者)들의 하는 일이란, 상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상상조차하는 도리가 업다니까 그러는군。하여튼 사실인데야 어쩌누?」

「그래두 난 못 밋겟저。아무러기루서니 제 자식을, 그것두 하나두 아니구 네씩이나 남이죽이는것을 잠자코이여패서 보고 잇섯다니……」

동료는 그래도 용이히 밋지안코 다시 한마디 하는것을

「가만 잇서。그러건 어떠튼간에ㅡ」

하고 편집국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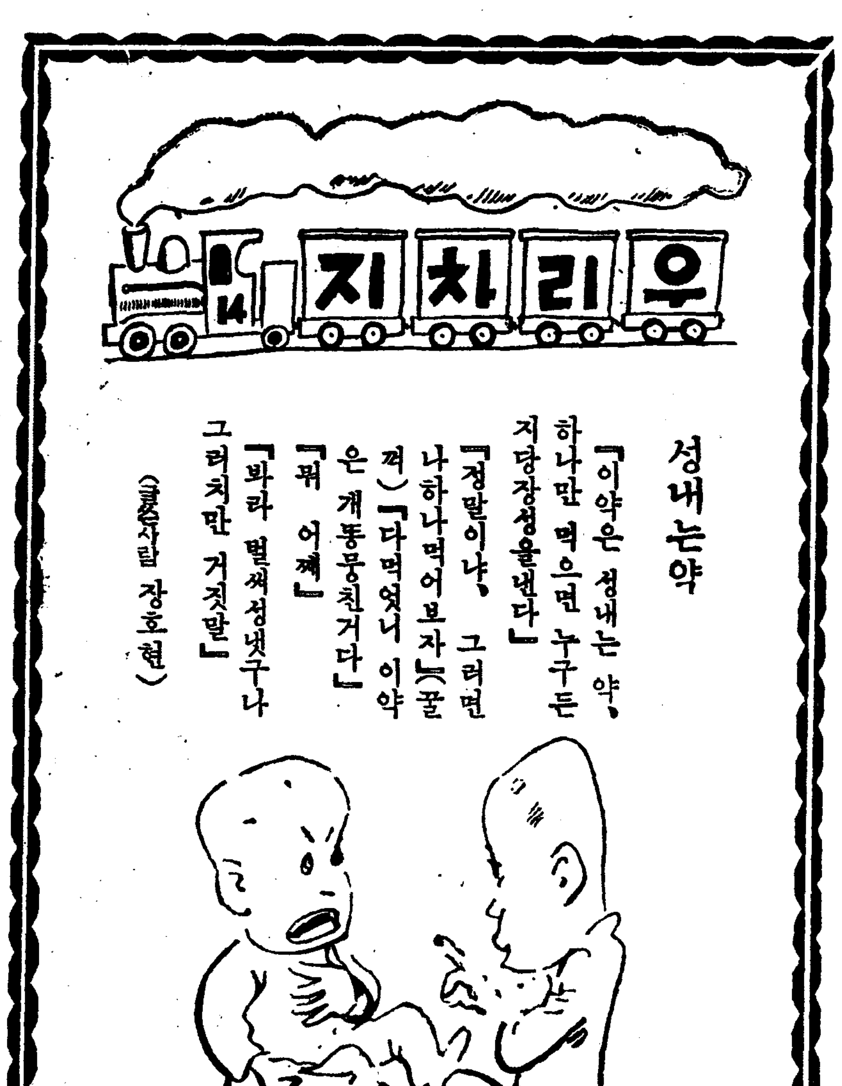
「그보다도, 그래 그러케 모두 죽여 업새고, 그놈은 대체어데로 도망을 갓누?」

전영호의 도주 경로에 흥더 흥미를 가지고 뭇는다。

「그놈이 말입니다。게서 그런케 다섯식구를 죽여업새고」

강신호는 다른 담배를 재떨이에다 비비며, 생각나는듯이 저편에 잇는 급사에게로 고개를 돌려,

「얘ㅡ 냉차 한잔 다우。」



安東縣

滿洲國安東省安東市興東前街一ノ三號
新古鋼鐵 中古機械 海陸物產 穀物雜貨 委託貿易 金融貸付 有名藥品
永同號本店
主 金一斗
商店電話 四〇四五番
自宅電話 三五四七番

安東市官電街九十六號
內科 肛門科 花柳病科 小兒科
大同醫院
院長 金命燁
電話 三六〇一番

安東市大和橋通
土地建物 倉庫委託 貿易保險
大同產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基鴻
專務取締役 李裕弼

安東市北一條通九丁目
永昌膠皮工廠
電話 長 三〇〇一番

安東市一番通五丁目三
支那名藥 滿洲名藥
國境大藥房
振替口座 京城 一三三五一番 奉天 四三二九番
⊙名藥報無代進呈⊙

安東市大和橋通八丁目一
北洋證券
電話 二八二二番

安東市興東前街一ノ三號
各種貿易 委託專門
永利長本店
經理 邱鑑亭

安東市四番通九丁目一
日本滿洲中國名藥 賣藥問屋
柳韓藥房
振替 京城 一四九〇七番

安東市新柳街六號
各種タイヤ 修繕及再製 平車製造
新滿タイヤ工業所
主 白熙善
電話 三五三七番

安東市三番通六丁目四番地
朝日旅館
主 朴文日
電話 三三九八番

安東市興隆街一七九
日滿タクシー
日滿サービス工場
河長 楊春芳慶
電話 三四〇七・四五〇八

滿洲國安東市大和橋通九丁目二番地
西谷證券社
電話 四六二〇番

安東取引人組合

滿洲興業銀行安東支店
姜曾喆 鄭來洛 韓命稷

安東大正普通學校
職員一同

安東市二番通四丁目
高信精米所
電話 二三八五番

安東市堀割南通八丁目二
三和精米所
金志賢
電話 二四八九番

安東市四番通八丁目二番地
鹽店金昌號
主 金尙玉
電話 三五六八一番

安東市大和橋通六丁目
海東棧
主 張景淳
電話 二四八五番

安東市二番通二丁目四
南滿土地改良株式會社 專務取締役
金東昊
電話 三〇七六番

安東律師公會
會員一同

安東市公安街七號
安東護謨工業社
長電 三〇一六番

安東市四番通八丁目
自轉車及附屬品直輸 卸商
高輪商會
主 高有權
電話 三三五一番

安東市下川端町二五
各種藥品 都賣
安東藥房
主 藥劑師 張金山

安東市二番通二丁目二番地
合資會社共和精米工廠 代表社員
李熙泰

安東市堀割南通八丁目
穀物貿易 委託 精米
韓興精米所

安東市三番通七丁目
聖學商店
電話 四一九五番

安東市六番通九丁目
丸鴨精米所
金志善
電話 三三九二番

安東市三番通七丁目三
義成商會 義昌運送部
電話長 二一三番

安東縣學校組合
組合長 田中有年
副組合長 金炳鎰

株式會社 安東取引所

安東市四番通七丁目
第一洋服店
主 金光疇
電話 三三五九番

安東市一番通五丁目四
西昌號
長電話 四六五八番

安東市一番通三丁目
共昌精米所
電話 一六五三番

安東市二番通五丁目
金虎贊
電話 二二六番

安東市大和通
金安公司
主 金七淳

安東市三番通七丁目二番地
日聖公司
日聖運送部

安東市五番通九丁目
昌承兄弟商店
主 金昌烈

安東市六番通九丁目二番地
順天堂醫院
電話 四七五五番

安東市四番通八丁目
金星醫院

安東市六番通七丁目
金泰榮

安東市堀割南通九丁目三番地
三和護謨株式會社
安東出張所
電話 四六四六番

安東市四番通七丁目一
江界旅館
主 李淑福
電話 三三八一番

安東縣公署
縣長 宮文超
副縣長 田中有年

安東市市場通八丁目
滿洲電業會社 安東支店

安東市三番通四丁目
運送通關 安利公司
主 尹炯奎
電話 三三二七番

安東市一番通六丁目四番地
平壤旅館
主 申福均

安東市二番通二丁目四
安東金融會

安東協成銀行
興中欠禮
崔忠元

安東市市場通九丁目三
化東藥房
金肯錫

安東市四番通八丁目四番地
南海商店
主 洪仁協

安東市大和橋通九丁目
中央キネマ
電話 二七九二番

安東市市場通九丁目
洋品雜貨卸商
日增洋行
電話 四六一

安東市四番通八丁目
德一商店
電話 二七四一番

安東市六番通九丁目三
龍滿商店
電話 三三四二番

安東市四番通九丁目
中央寫眞館

安東市市場通七丁目
李東秀

安東市六番通
趙何駿

安東市三番通七丁目一
金銀細工 金賣入 ツブシ
白金堂
朴亨柱

安東市下川端町第九號
廣生堂醫院
院長 金最玉
電話 二九六四番

安東市五番通九丁目四番地
德濟洋襪工場
主 崔南軒

安東市堀割南通四丁目四番地
穀物委託 精米業
豊洲商會
金德善

安東市九番通一丁目
李泰永

安東市市場通
安東牧場
電話 三一七四番

安東市四番通八丁目
李東燦
電話 三一五〇番

安東市三番通り六丁目
安東自轉車店
電話 三七八〇番

朝鮮日報社安東縣支局
支局長 姜齊煥
記者 白用得
記者 朴晟植
販賣部 黃昌甲
長電話 三七四四番

宜寧

宜寧面西洞
道會議員 高達升

龍德面淵里
李愚宗

統營邑曙町
具玉童

柳谷面世干里
田衡重

華井面華陽里
大中園
主 金沂鎬

大義面泉谷里
宜寧產業組合

宜寧面長

宜寧酒造合名會社
代表社員 李圭晶

龍德面竹田里
李泰羲

朝鮮慶南宜寧邑內
合同百貨店
主 金億根
電話取次(七六番)

陜川朝鮮酒酒造組合

宜寧川改修工事事務所
陳善祚

宜寧川改修工事事務所
孫鴻遠

慶南宜寧邑
土木建築請負業
徐廷鎭

大義面泉谷里
吳景鉉

株式會社 新反精米所

大義面泉谷里
吳學璣

柳谷面事務所

鳳樹面西谷里
魯致文

芝正面職員一同

宜寧面東洞
醫學士 孫洪兌

宜寧面東洞
古物商 姜敬仁

洛西面全大里
李昌三

柳谷面鴨川里
李壽鏞

洛西面來濟里
李淵斗

宜寧邑內
宜寧和信連鎖店
店主 朴鶴出

鳳樹面竹田里
面長 姜大鉉

宜寧面中洞
大東印刷組合

晉陽郡上南面
孫可遠

宜寧面中洞
林基祥商店

宜寧面中洞
公醫 諸吉允

慶南宜寧邑內
大成ミシン商會
主 周時丸

宜寧川改修工事事務所
白昌奎

洛西面全大里
李允斗

田亨植

七谷面事務所

大義面長
朴太洪

鳳樹面竹田里
姜炳秀

洛西面來濟里
李明斗

正谷面中橋里
南性祐

新反金融組合

洛西面如意里
田岐秀

嘉禮面職員一同

芝正面
李道英

鳳樹面西谷里
鄭濂熙

柳谷面
金鍾浩

嘉禮面大川里
面協議員 河命助

嘉禮面加禮里
李永三

富林面新反里
盧敬容

華井面

學芸

文學的現實과寫實
──現代批評의享受的態度──
(一) 金煥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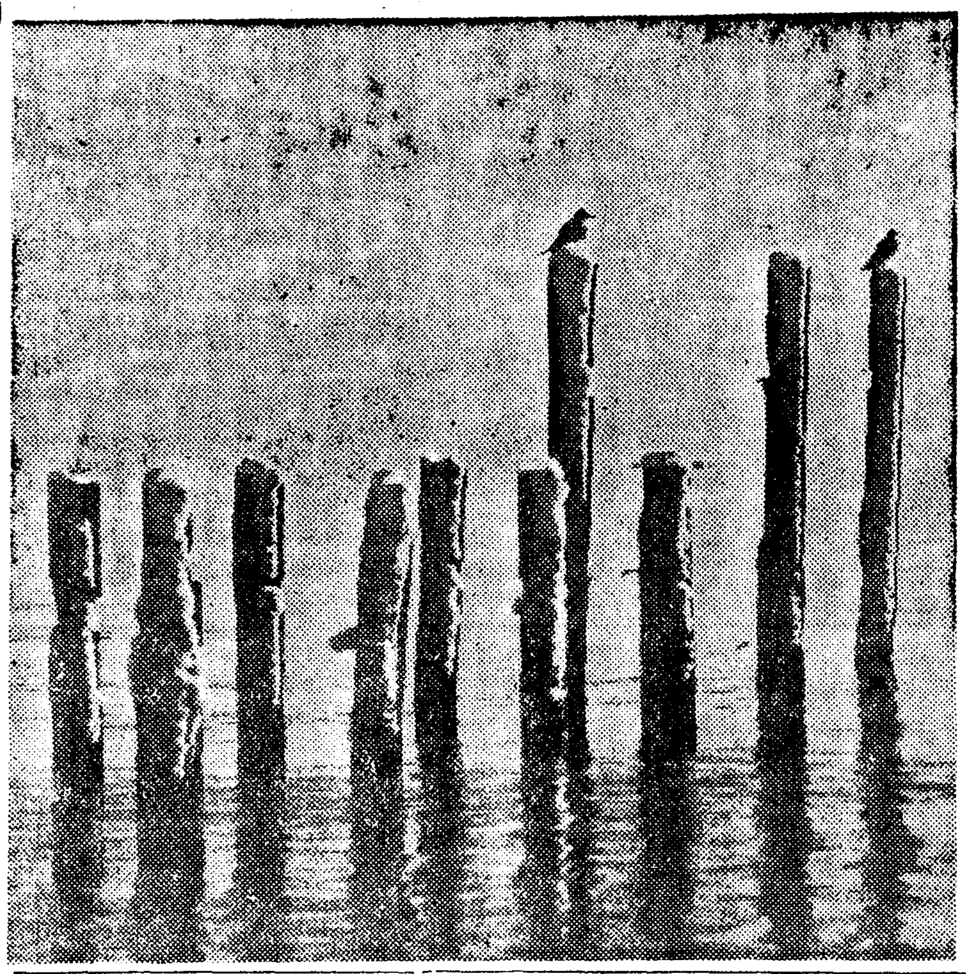
「이 作品은 非現實的이다」「이作品은 現實을 無視하엿다」「이것은 寫實主義作品이 아니다」이것들은 우리의 만흔 評家가 作品을 評할때에 가장自信잇고 得意하게쓰는 그리고 또 만흔 作家가 自己의 作品이 그리 批評되는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斷案이다 非現實的이까닭에, 現實을 無視하까닭에, 寫實主義에 立脚하지안흔까닭에, 失敗한 作品이란 말이다.

『現實을 無視』니『非現實的』이니 할때에 그『現實』이란말이 作品그것으로의 現實, 다시말하면 文學的現實이라는 意味라면 그리고『寫實主義作品』이란말이文學的眞實이 나타난 作品이라는 意味라면 우리는 그런 斷案들을 그대로 容認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그『現實』이라는말이 實生活을 그리고『寫實主義作品』이란말이, 實生活을 잇는그대로 그린作品이라는 意味일때에는 더욱이 몃명評家나 作者의思想에 못치지안코 우리文壇에서와가티한 有力한 常識이되어잇슬때에는 우리는 우리文壇의 正當한發展을 爲하야 이硬化한 常識의 겁질을 벗겨바리지 안흐면안된다.

文學은 實生活의 模倣이라고도하고, 再現이라고도한다. 그리하야 이곳에 實生活을잇는 그대로만 그려노흐면 우리를 기쁘게하고 感動시켜 文學本來의 使命을 다 할수잇다는 理解가 成立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文學은 그 本來의 使命을 다할수잇슬까? 實生活의 잇는그대로를 한作品속에서 다시보고, 우리는 그에서 文學的感銘을바들수잇슬까? 萬一 그러타면 그에서『實生活과 한作品속의 現實과의 距離가 갓가우면 갓가울사록 그와 正比例하야 우리의 文學的感銘이 커진다』는 命題가 成立될것인데 果然 우리의 文化的 感銘이 作品속의 現實과 實生活과의 接近度에 따라 增減될것인가?

이 疑問을 풀기爲하야는 우리는 作者는 그의 意圖와 思想에 適合하도록 그의題材를 則實生活을 選擇하고 改造한다는 事實과 또 讀者란 作品속에서 自己의 現實그대로를 다시보기를 決코 기뻐하지안흔다는 心理的事實을 說明하기前에『말은 달닐때도 발이넷이란』는이 命題와 달리는말을 形容한『말님의 발이 여덜이오 열여섯이란』(鄭芝溶)는 이 詩句와를 對照하여 보면 足하다 말의발은 客觀的現實에 잇서서 달릴때나 섯슬때나 언제나 넷이다 그러나 文學的形象의 世界에서는 말발이 여덜도 될수잇고 열여섯도 될수잇다 그리하야 文學의 世界에잇서서는『말님의발이 여덜이요 열여섯이란』만이 現實이요「달리는 말발이 넷이라」는 우리에게아모런 實感[illegible]도 주지못하는 [illegible]가되고 마는 수도잇는것이다.

우리는 만흔學者가 藝術의起源을그곳에서찻는 어린아이들의 遊戲現象을 考察하여보면 客觀的現實과 文學的世界와의 價値標準의 差異를 더한層明瞭히理解할수잇다. 어린아이가 竹馬를 라고 채죽질할때 그가란대人가지는 그에게잇서서는 갈깃머리가더펄거리고 펑지를치며 [illegible]에 [illegible]까지 느낄수잇는 피가뛰는 살은말이다. 그러나 어른의눈으로 볼때 갈깃머리가잇고 펑지가잇고 [illegible]까지 느낄수잇는 이 살은말은 單只 쪼개진 대人가지에 지나지안는다 그리하야 우리는 어린애의 現實파어른의 現實파의 關係와 똑가튼 關係에잇서서 文學的現實파 客觀的生活인 實生活파의 關係를 理解할수가잇다.



……寒……湖……

詩壇展望
或은「詩精神의擁護」
尹崑崗

詩壇──이라고 불리워지는것의 存在가 무엇을 意味하고、어느곳에 잇는것인지、詩를 쓰다는 나부터가 그것을 아지못한다. 이것은 非單 나의 罪만이 아니리라、事實 우리가 지금 말하는 詩壇이라는것自體속에 스스로 携帶되여잇는 한개의 性格인까닭이다. 本是 詩壇이라는것의 名稱부터가 퍽 애매하게 불리워지는것으로 실상 그것은 存在되어잇지안라고 말하는것이 至當할는지도 모른다.

詩壇이란 元來 다른分野──創作壇이나 評壇보다도 더욱 애매한存在가 되여잇는것이니 우리는 다만 이름만으로의 그것을 들어왓고 불러왓고 지금도 부르고잇슬 따름이 아닌가?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가 지금말하는 詩壇이란 실상 한사람의 人間이 제마음대로 쪽─그어노흔 한개의 直線上의 일을 말하는데 不過하다고 말할수도잇슬것이다. 따라서 詩壇에는 우리가 創作壇이나 評壇에서 흔히 말하는 "水準"이라는것이 무척 曖昧할뿐더러 숫허 그것이 업다고해도 妄發이 되지는 안흘것이다.

그리하야 詩壇은 名實그대로 散文的이요 分散的이다. 따라서 時人도 分散的이다. ─그들은제各己 한자리를 잡고 孤立하게 [illegible]는다.─시켜운 [illegible]와도가치 그러나 單只 그것뿐이다

初期 우리의 詩人들을 個別的으로 볼때에는 確實히 進展을 뵈여주는 사람이업는것은아니다. 一時의 風潮로 뵈어잇든 [illegible]的 意味로서의 自我[illegible]、個性卑下를 일삼으며 詩의 [illegible]를 말하고 스스로 詩로부터 버림바든것가튼 存在의사람들은 이젠거의淸算되엇다고하야도 [illegible]한것이니 이것만으로로도 詩壇를 爲하야 [illegible]할 일이다. 事實 現在의 詩壇이 分散的이요 지지하거나마 多少生氣와、活動性을 띠우고 끈기잇는 情熱에 불타려하는것가티보여지는것은 그까닭이리랑.─

英國流의 "主知"에 영롱한幻想을國譯하든 金起林이(氏字를 便宜上 省略한다 以下도 이에 準한다) 붓대를 꺽고 書齋속에 파무친것은 섭섭한 일이나 단의 時人 芝鎔파 自然속에 詩情을 푸는 [illegible]이 아직도 詩를 노아버리지 안엇고 "빼다귀의 포엠"이라는 이야기를 남겨노코 行方不明이 되엇든 [illegible]煥이 얼골을 내밀고 林和가 "玄海灘"을 건느고 世永이 "山제비"를 부러워 하고 李燦이 "焚香"을 피우고 [illegible]이 "鄕愁"에 울고 [illegible]이 "憧憬"을 하고 光均이 "[illegible]"에서고 [illegible]史가 "草家"를 짓고 [illegible]가 "바다"로 出帆하고 [illegible]가 "八道風物"을 遊覽하고 [illegible]이 "山"에올으고 大鳳이 "無心"하고 海文이 "바다의 [illegible]"에 醉하고 章煥이 "獻詞"를 바치고 夕汀、萬榮、光燮、金[illegible]人、馬鳴、雲閒、達鎭、朴[illegible]等等 이들은 제各己 "詩[illegible]殿"을 "[illegible]"파 "詩人春秋"를 떠메고 나온 것이다. ……이만하면 우리의 詩가 前에보지못하든 한개의 [illegible]만한 活氣를 보여주엇다고 말할수도 잇스리랑.

그러나 그것은 單只 그것뿐이엇다. 한낫 [illegible]的 表情파 現象에 不過햇다. 問題는 그것을 이 얼마나 價値잇는것이냐(?)는데 가로도허잇는 까닭이다. 이러케 몰때에는 如前히 詩다운 詩는 稀少하엿다 水泡와가티 불면 꺼저버리는 소재주만의詩, 참된意味의 思想的個性이 업는 詩──이런것들이 그殆半으로되어 文字그대로「답보로行進」을 부르데 不過햇다.

더구나 許多한 이詩人들은제마다 獨善의 將軍이되어 自家陶醉를 일삼은것이다. 거기에서는 한사람의 詩人이 하나의絶對를 意味하는 한개의 流派를 지어노앗다. 勿論 그流派란는것이우리가熱望하야 마지아니하는 時人의 思想파 趣味의基調우에 세워진것이라면 두팔을들것도업시 喜賀한 일이지만 問題는 그러치안타. 그것은 아무런 個性的基調도 가지지못한 文字그대로의 分散파 混亂만을 意味하는것이엇다. 思想파 趣味의 個性的基調는 그만두고 그것들을 結合시키고 統合시킬 아무런 準備도 誠意도 努力까지도 업섯다. 各自가 제各己"牙城"을 싸어올리고 달팽이처럼 生活을 堅固하엿던것이엇다.

漢詩

題 元旦
押 遲
桐岡 考選

一等
京城府昌信町一三一 全珪弘

玉漏聲催曙色遲。
瞳々初旭欲昇時。
檐前栢葉開新酒。
門上桃符換舊枝。
從此群生皆有樂。
方知造物本無私。
休祥自與春風至。
東亞和平了可期。

評曰 通篇婉轉有趣但頷聯枝字末句了字未安

新春頌
雪夜
咸大勳

나를 벌서 늙엇다는 사람이 잇다 새삼스러히 내나이를 헤여볼것도 업지만 그러나 내지금아무리생각해도 나이로보다 내마음으로보다 나는아직 젊엇다 그리고 永遠히 내마음만은 저 靑靑한소나무처럼 젊으리라고 밋는다 누구나 最後의 墓府를 나올때까지는 事實 나이로도 젊고 意氣도 젊어 山을 뭉길 勇氣가 잇는거지만 한十年 世苦에 닥기고 나면 自然 나이도 묵지만 마음도해젊는것이다 그러나 내게는젊은情熱이 잇고 내게는『니체보』의 堅忍力이잇다 그리고 恒常 猛虎처럼 달리려는 意氣가잇다 그러나 나는 우리안에 가친짐생처럼 한十年을 여러가지 意味로의 自由를일코 지내왓다。이自由잃흔 人間의 生涯는 肉體로도 늙거니와 自然 精神的으로도 늙어지는것이다 그리하야오날날 나를보고『자네도 늙엇네』하는 벗의말을 듯게된것이나 아닌가 생각하니 人生이 새삼스러히 슬퍼지기도하다 事實 내가 처음 朝鮮나올때는 큰野心이 잇섯다 무어하나 創造하겟다는 意慾이 넘우나 强烈하엿다 그러나 不幸히 나는 나의 事業的同志들을 모─두 일헛다 그리고는바울을잇지 게(蟹)모양으로 한여름석이 自由업는 人間이되어 쭈그리고 안저잇게 되엿다

나는 이鐵柵속에서 프른하늘을보앗고 맑은 바람을마섯고 아름다운 꼿 香氣도 마텃다 그러나 그것은 鐵柵속에서보고 느끼고 感한것이기때문에 나는 恒常 슬픈哀傷속에 이 花朝月夕의 아름다운 香그러움을 맛보앗다 때때로 野獸스러운 人間이 내自由업는 몸을 이리놀리고 저리놀리엇다 나는 한개 動物로써 그奸惡한 人間의 戲弄을 만히 바덧다 이리와 마음을 가지고 巧言飾色하는 사람 범의 마음가진 人間 두꺼비가튼모양을가지고도 여우의 마음을 가진 人間들의 가진戲弄! 그러나 그戲弄이 언제 그치랴? 사람은 저 靑山처럼 봄안개 여름구름이 오고 가는동안 제마음만 變치말면 제모양은 언제나 그대로엇다. 그러면 철따라 李節따라 自然은 바뀌여도 저靑山 저靑松은 變하지 안는것이아니냐?

今年新正 그어느날 나는觀劇을 하고나서 나리는 눈을 마즈며 집으로 도라간 일이 잇다. 어쩐지 이 눈을 마즈며 것는동안 나는 한때눈을 그려 저 西伯利亞로 放浪하려든 생각을 햇다 그리하여 나는 그때 한동안까지 일치안햇던가? 그동안 十餘年만에 數日前만나서더니 그동안 얼굴에도 이제는 애수뵈비치 살아서 다시금 지난날의追憶이 우리의 가슴에 서리지안햇던가? 사랑하고 아끼던 그빗! 그비슨 내가 옛날許할때의 그비다보다 疏신人生苦를 겨것다 物質的으론 豊裕해도精神的 괴로움은 컷던모양이다

「당신도 늙엇구려!」

이말에 그는 人生의슬픔우슴을 우섯다. 그리고 그비슨지간날처럼 壇歷엇시 親할수나 잇슴을 이야기햇슬때 우리젠 하엿덧는 人生悲劇이 비저질뻔햇다.

밤내리은 눈우로 자꾸 옴겨진다. 눈!눈!나는 눈파는 언제나 親할수잇다. 나는 눈을 속복이맛고 仁旺山아래내 萬屋雪자것다 軒燈이 밝갈다。마─치 눈더핀曠野에서 차즌 집의燈불모양으로 내게는 그때도 집이반가웟다.

門바겨서 눈을털고 房에드러서니 周安은 고요하다. 불을 켜고 자리에누으니 燭火빗이 조타.

朝鮮의溫突은 로시아의「페!치카」모양으로 暖房裝置의 한가지조흔것이어니와 溫突의 情調는 朝鮮人만이 獨特하게 맛볼수잇는情趣다. 密閉하게서는 눈보래소리가 들린다. 山아래에잇는 어징!靜寂이 흐르는 속에들리는한개의 눈보래소리! 나는 十餘年前에 그리던시베리아 曠野를 생각노라! 그리고 거기自由로히달리는「트로이카」를 생각노타 그리고 그벗파가티 시베리아로가리라하고 그벗파속삭이던지나간옛날을 생각노라 그벗은이밤엔무엇을꿈꾸는고? 지나간날의모─든 理想이 물거품처럼 살아지고 只今은한개의 家庭人이된그벗!

只今 이눈보래소리는 그曠野에서 우리들,부르는것갓다 그러나 그벗은 只今 고요히 잠들엇스리니.

新春文藝一等當選
素服 (七)
金永壽 作
鄭玄雄 畫

양서방의 피를 선 눈에는 밥상이 보일리가 업다. 그냥 그대로 안저잇다. 그러나 밥그 용녀는 용녀대로 또 어제가티 바랫다.

더운 물을 푸는 소리가 들리더니 용녀는 어제가티 또 세수를 하는듯 푸 푸 소리를 치며 야단이다.

양서방은 그런 소리를 하나도 빼노치안코 듯고 잇스러니 숨이 가쁘도록 분이 치미는것을 참기가 자못 괴롭다.

「오냐 네가 지금 팝주 집엘 가려고 이러는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 양서방은 더 참을수가 도저히 업다. 며 홱 고개를 문쪽으로 도리키

「상내가!」

하고 소리를 얼마든지 질럿다. 허나 게집은 양서방의 말에 조금도 어려움이나 또는 두려움을 느끼지안는것은 언제나 조타.

「거기 밀어노쿠려!」

하고 여전히 세수에만 바뿌다.

「밥 안먹어!상 내가!」

그러치만 양서방은 어제와는 딴판이다 가튼 말이지만 말속에 뼈가 들엇고 힘이 매처다 하자면 이만큼 강하여 진것임 게집의 약점을잡은 양서방은말에 틀림업다

허지만 게집은 양서방의 지금 이런속은 알 까닭이 업서 그러니까

「좀 잡머어주려 밥을 다안먹구」

이러케 버꼬기도 해본다 양서방은 흥 게집이란 앙큼한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좀 더 분로를 느껴 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쩌는 수가 업서

(어디 이년 보자──)

하며 혼자 분해하고 혼자 버르기만 한다. 그러나 게집은 눈치를 모른다. 한참 바쁘게 세수를 마치고 들어와서 화장을 하고 뒤 화장이래야 바가분각이나 바르고 동백기름이나 바르고 그러는것이지만 그래도 제법 공을 드려 하고나서 또 선반에서 헌 고무신을 꺼내들고 나간다.

양서방은 오늘은 어딜 가느냐고 뭇지도 안햇고 물을필요도 업섯다. 그러니까 게집의걸음은 어둠속에서 한껏 가벼웟다.

양서방이 집을 나와서 술이 제법 취해가지고 비틀 걸음을 치며 상상을 골목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채 한시간도 걸리지 안흔 짧은 동안이엇다.

양서방은 파랑 대문집을 발견한다. 그집을 지난다. 그다음집 또 그다음집 그는 이러케 따저가며 발을 옴긴다.

(파랑집에서 그오즉──)

그러다. 이집이 바로 팝주집이다. 들창이 보인다. 망사우에다가 종이를 어겻을 하여노하서 고개를 느려도 방안은 드려보지안흘것이 분명햇지만그래도 양서방은 괘에니 한번고개를 숙여 느려보고 또 발도둥을 해보고 햇다.

원래 으슥한 골목이 게다가 동人불하나 업서서 지내가는사람의 얼굴도 잘 뵈지안흘 정도니까 양서방이 팝주집 들창을 드려보기엔 아주 고만이다

양서방은 우선 들창 아프로 바싹 다가선다. 숨을 죽인다. 하발끄테힘을주어발끈돋움을한다. 삐人자락을거더 올리어 머리를 차고 눈만내논다. 그리고서 귀를 기우린다.

바람소리만 업섯든글 방에서 나는소리를 양서방은 물론다들울수 잇섯슬것이나 바람은차게 불어그는 또그대로 무한히 안타까워고 약이올랏다.

조곰잇더니 어딜 어떠케는지 깔깔거리며 게집은 제지러지게 웃고 앙이 앙이하고 앙탈하는 소리와함께 점점방안은 재미잇서 갓다.

양서방은 확 얼굴이 달아올랏다. 귀 밋치 뜨끔하엿다. 그는 곳 주먹 칠을 삼키고 주먹을 단단히 쥐어보앗다.

드디어 양서방은 묘한 생각을 해내고 말앗다. 그리고 허끄를 찾에다 갓다대며 지긋이 밀엇다. 칠이 백지에 차차 먹어들어간다. 침은 일전짜리만한 넓이로 번진다. 그래서 그는 손꼬락을 대고 조금 망서리다가 그냥 예─라 뚤코말엇다. 창에는 드려다보기 조케 알마즌구멍이 낫다.

004129

咸安

郡北面事務所 面長 李漢根 外職員一同
伽倻面事務所 面長 尹仁孝 外職員一同
咸安面事務所 面長 具載喜 外職員一同
漆西面事務所 面長 沈相協 外職員一同
漆北面事務所 面長 權寧灝 外職員一同
漆原面事務所 面長 金性洙 外職員一同

咸安産業組合 理事 趙昌龍 外職員一同
伽倻産業組合 理事 金東洙 外職員一同
郡北産業組合 理事 趙櫓濟 外職員一同

咸安邑內 共濟醫院 公醫 朱世正
郡北驛前 海星醫院 金相斗
郡北驛前 炳玟醫院 余炳玟
漆原 東山醫院 李金碩

賀正

伽倻面新音里 安商守

咸安驛前 司法書士 入江軍一
代山面平林 司法書士 趙命壽

咸安郡廳 郡守 金學成 內務課長 太田治平 棉作係職員一同

慶全南部線郡北驛前
◉運送店 代表者 趙徽植
㊁郡北荷主組運送店 代表者 鄭命權

郡北面東林里 喪中欠禮 趙洪濟 郡北金融組合長 趙性濟

郡北面協議會員 趙鏞瓘
郡北面協議會員 卞純燮
郡北面協議會員 李泰權

郡北面小浦里 黃相五

咸安警察署 署長 志田芳松 警部主任 安藤虎吉 外職員一同

咸安驛前 甲種料理 甲月館 主 金性甲 妓生 牛島春 玉蓮 月仙 福月 春南 吉子

咸安金融組合 同伽倻支所 漆原金融組合 同平材支所

郡北面慕老里 鄭熙三

郡北面中岩里 趙范濟 趙正濟

咸安驛前 日野原信

咸安邑內 和洋雜貨 和信商店 李洙晟

代山面平林里 和洋雜貨店 金永植

郡北驛前 綢緞布木和洋雜貨 合同商店

咸安驛前 綢緞布木和洋雜貨 元昌商店

咸安驛前 伽倻酒造場

郡北面下林里 權井鉉

郡北面[illegible]運里 李春浩

咸安郡 面長俱樂部

郡北驛前 趙蓮花

咸安水利組合 職員一同

咸安邑內 和洋雜貨煙草商 趙鏞德

郡北面東村里 趙鏞述

郡北面下林里 趙鏞式

郡北公立尋常小學校 校長 田中豊

芙江

朝鮮京釜線芙江驛構內 ◉朝鮮運送株式會社 芙江代行營業所 代表者 禹順弘 主任 朴東培 書記 富壽福 朴憲玉

京釜線芙江驛前 錦江會館 主 張琪源 女給 吳貴禮 同 申蓮心 同 安鍾熙 同 金花仙

淸州酒造株式會社 芙蓉工場 京釜線芙江驛前 黃龍源

忠北芙江 金融組合[illegible]一同

淸州郡芙蓉面芙江里 芙蓉面協議員 芙蓉小學父兄會長 金融組合長 全瑞鳳

淸州郡南一面外川里 三圓金鑛主 金買入商 金哲均

京釜線芙江驛前 末吉組 有村榮三郎

京釜線芙江驛前 綢緞布木和洋雜貨商 柳根猷

京釜線芙江驛前 三和護謨商店 主 金善濟

京釜線芙江驛前 綢緞布木和洋雜貨商 盧載庚

淸州郡芙蓉面芙江里 芙蓉小學校 職員一同

忠北芙江 錦湖農場 金洛基

京釜線芙江驛前 米穀商 金東煥

京釜線芙江驛前 米穀商 方漢甲

京釜線芙江市場 布木商 李鍾賢

京釜線芙江驛前 綢緞布木和洋雜貨商 禹榮準

堤川

堤川郡廳

忠北自動車運輸株式會社 堤川營業所

堤川邑 海陸物産 肥料官鹽 麥粉酒類 東光商會 主 金東基

忠淸北道 堤川穀物商組合

堤川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北堤川郡堤川面邑部里 堤川酒造株式會社 電話一六番

朝鮮忠北堤川邑內 忠北特産物移出斡旋 盛昌商會運送部 電話三四番 振替京城一八二四四番 鄭海昫

堤川繁榮會

堤川邑 綢緞布木 都賣專門 吾市吾商店 主 姜海喆

堤川酒造株式會社鳳陽工場 工場長 李鍾元 主任 朴齊勳

忠淸北道堤川邑 食料品 內鮮雜貨 諸品 化粧品 金物 卸小賣 丸屋商店 電話一八番

忠北堤川邑 食料品 中央商會 主 安漢亮

鳳陽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北堤川邑 綢緞布木和洋雜貨 金永商會 主 金載奎

合名會社 長谷商店

忠淸北道堤川邑 賣藥商 堤川藥房 主 李元熙

堤川産業組合 職員一同

崔大成商店

堤川邑 時計眼鏡 堤川堂

忠淸北道堤川郡堤川邑 濟衆醫院 醫生 申昆均

時計眼鏡專門業 日新堂 主 黃承熙

雜商 張熙阜

忠北堤川邑 綢緞布木和洋雜貨 吳晩宰商店

金銀細工 洋品雜貨 相信銀房 主 金東旭

忠北堤川邑 綢緞布木 和洋雜貨 各種ゴム靴 三永商店 主 崔周泳

忠北堤川邑 古物買入 富國商會 主 尹滋勳

堤川邑 朝鮮金物類 忠一金物店 主 盧忠烈

朱乙

朱乙驛前 朱乙酒造合資會社 電話五一番

朱乙醫院 公醫 李寅耿 電話三〇番

朱乙 金希天 電話二〇番

朱乙 李鳳南 電話二一番

朱乙 嚴泰燮 電話一九番

北林商會 馬龍男 電話九番

活版印刷 和洋紙物 文房具 東亞印刷所 電話二九番

和信運送店 三星商會 電話二三番

朱乙驛前 九一運送店

朱乙驛前 九三運送店 尹學山

朱乙 金雲河 電話一七番

朱乙 張翰 電話二七番

朱乙 朴潤

朱乙 池章鴻

朱乙 李鍾善

朱乙 李一南

濟生醫院 醫師 權亨植 電話三八番

松圃醫院 醫師 崔恒鎭

朱乙木材所 崔昌元 電話二六番

朱乙驛前 司法書士 太觀奎

朱乙新藥房 車光

濟南

濟南市四大馬路緯二路 義興商事公司 主 文奉三 金沙燮 電一一六二番

濟南市三大馬路緯九路 御料理 喜樂

濟南市七大馬路緯二路 永信公司

咸陽

咸陽郡馬川面楸城里 碧松寺宗務所 住持 李仁洪

咸陽郡咸陽面下洞 道會議員 高龜玉

今年度 蠶種需給圓滑
繭百萬石增産計畫未成이나
原蠶種、普通蠶種需給樂觀

昨年度의 夏秋蠶은 南朝鮮地方의 旱魃、西北朝鮮地方의 水害寒害等으로 因하야 桑樹의 被害、桑葉의 硬化、壯蠶期의 冷溫等 不良한 環境에 處하야 飼育戶數는 十三年度보다는 約九千戶나 增加하엿스나 掃立에 잇서서는 三分六厘가량이 減少되여 百萬石增産目標達成에는 尙今 遼遠한바 同十個年計畫의 最終年인 來十四年度用蠶種需給을 農林局에서 調査한바에 依하면 原蠶種 普通蠶種을 通하야 一般으로 需給圓滑을 豫期하나 其中 忠南의 一萬六百枚 全南의 一千二百九十六枚 黃海의 三千五百六枚 咸北의 一千六百五十五枚가 不足을 招來하고잇스나 全體로 보아서는 過不足으로보지안코잇다하야 樂觀하고잇다 한다

昭和十四年度用蠶種需給表(總括)

	製造枚數	需要枚數	過不足
京畿	八九、五五〇	八二、五五〇	七、〇〇〇
忠北	六六、五〇〇	六六、五〇〇	―
忠南	五七、〇〇〇	六七、六〇〇	△一〇、六〇〇
全北	八三、三三一	八三、〇四〇	二九一
全南	一〇三、八二七	一〇五、一二三	△一、二九六
慶北	二二四、〇〇〇	二〇九、〇〇〇	一五、〇〇〇
慶南	一七〇、四四四	一六四、〇〇〇	六、四四四
黃海	一一六、四〇八	一一九、九一四	△三、五〇六
平南	九一、一三〇	八二、五七七	八、五五三
平北	八〇、一二七	七六、〇〇〇	四、一二七
江原	一二一、六〇四	一一四、六〇四	七、〇〇〇
咸南	九七、二五一	八四、八〇〇	一二、四五一
咸北	五六、九九五	五八、六五〇	△一、六五五
合計	一、三五八、六一七	一、三一三、四一三	四五、二〇四

硝子工場設置【裡里】

裡里邑 安達保太郞氏等이 主催가되어 裡里에 硝子製造工場을 設置한다는바 目下 具體案을 作成中인데 或은 現在小規模로 製造하고잇는 裏田硝子工場을 買收하야서 이것을 大規模로 擴張할것도 가트나 어와가튼 工場이 設置되면 裡里의 將來를 爲하야 기뻐할消息이라한다

資金融通要望
永興漁業組合에서

【文坪】咸南永興郡 針漁漁民들로서 組織된 永興漁業組合은 組織以來 針漁漁民들에게 雇下式 漁獲을 獎勵하며 또는그의 資金融通을 施行하야 一般中小漁民들은 每戶一二三圓의 漁獲高를 有하게되엿스며 그의成績이 良好하야 年年大豐漁를 보아오든바인데 昨年四月에는 이것을擴大하야 永興灣內의 漁業은무엇을勿論하고 加入시켜 一般漁民들은 將來針漁漁業과가튼 豐漁에 期待를가지고 기뻐하는바인데 永興灣에 多大數를 占하고잇는 鰊漁業에對하야 漁業期는 迫到해왓는데 漁業資金을 融通치안허 鰊漁民들은 대단한 頭痛거리가 되여잇다고한다 指導者들의 말을들으면 計劃期限前이므로 融通치 안는다고한다 그러나 一般漁民들은 期限前이라도 조흔方策을取하야 貸付해주기를 要望한다고한다

濟州島除虫菊 年産額八萬餘圓

【全南支社發】濟州島에는 昭和八年度부터 除虫菊栽培를 하여온바 甲産額 一萬四千貫으로 그價額이 八萬餘圓에 達하야 農村副業에 有利한것으로 되여잇다한다

淸津 陶器商組合 ―正札制度實施斷行―

【咸北支社發】지난十日 淸津市內에잇는 三十餘陶器商은 陶器商組合을 創設하고 國策에依하야 正札制度實施를 斷行하는等 販賣統制를 自進하게되엿다한다

寶城簡保千口突破

【寶城】全南寶城市內簡保口數는 一千口가 無難히 突破되엿다하는바 이는 愛國貯蓄金의 利用으로 因하야 大槪가 簡保或은 會社保險에 加入하는 모양이라하며 郵便所에서는 전에 新契約收金을 한사람으로能히하엿는데 現在는 業務가 擴張되야 二人이 活動코잇는 형편이라고한다

酷寒繼續으로 和順麥作憂慮

【綾州】全南和順地方에는 近日水銀柱의 急降下로 因하야 附近地方一帶의 麥作은 凍害가 不少하야 아프로 二三日內에 日氣가 풀리지안는다면 大麥小麥을 通하야 凶作을 免키어렵다하야 자못憂慮中에잇다한다

江原道 農産物總産額
―共販額만도四百五十萬圓―
農作物豊穫에基因

【春川】昨年中江原道의 一般農形은 大體로良好하야 平年作보다는 훨신나흔편이다 各部類의 總決算을보면 共同販賣에 나타난 數字만 總額이四百五十萬圓으로 比前年一百七十萬圓이 增加하엿다 이는主로 新規共販事業中 大麻 黑麥 苧麻子 眞綿 豚肉等의 共出을보앗스나 價格暴騰과 數量增加로 巨額增加를 본것이라한다 大體로 본重要産額은 다음과갓다

	數量	金額
繭	一六〇萬키로	一、二二三萬圓
正租	八萬石	一一二萬圓
小麥	二萬石	四萬圓
大豆	二萬石	四〇萬圓
大麻	七萬貫	二二萬圓
切干大根	一五萬貫	一一萬圓
棉花	二二〇萬斤	一七萬圓
藁工品		一九萬圓
穀用叺	四二萬枚	
肥料用	一五萬枚	
筵	三〇萬枚	
繩	五〇萬貫	
其他		一二一萬圓
計		四百五十萬圓

新義州港 貿易激減 第一旬

【新義州】初春第一旬新義州港貿易額은 前旬에比하야 出荷가 極히閑散한데 輸出 七十四萬二千圓 輸入 七十三萬二千圓 計 百五十萬四千圓으로 이를 前旬에比하면 輸出 六十六萬五千圓(四割七分) 輸入 百七十七萬九千圓(七割) 計 二百四十四萬四千圓(六割二分)이 激減되엿다

忠北名物 模造眞珠
倍額增産企圖코加工工場設置後
外國으로直接輸出

【忠北支社發】忠北道의 特産物의하나인 淸州郡江外面을 中心으로 郡內八個面에서 生産하고잇는바 現在 同工場에從事하고잇는者는 實로 七百六十餘戶에達하고잇스며 道當局에서는 過般同業組合을 設置하고 生産增加販賣統制等을 圖謀하는同時 生産者의 利益을 圖謀하여왓는데 道當局에서는 今般다시 加工工場을 設置하야 現在生産高의 倍額인四十萬圓의 增産을 期圖하기로되엿다는바 同加工工場은今春內로 設立할 計劃이라고한다 그리고 從來에 이模造眞珠는 加工工場이 업섯든關係로 大阪에移出하야 그곳에서 加工하야 外國에輸出하엿는대 今後로는 直接外國으로 輸出하게되엿다는바 大阪等地의 中間商人으로 말미아마 밧든 年一萬圓가량의 損害額이 全部同生産者의 手中에들어가게되엿다한다

으로 全部落에 普及할計劃이라 한다

荻細工講習

【春川】春川郡에서는 農民의 副業을 助長하기爲하야 荻細工講習會를 지난十二日부터 文廟에서 開催中인데 講師는 先進地 黃海道에서 技術者를 招聘하얏스며 期間은 一個月間이라한다

全南道 水稻種子更新
―第二次播種二百餘石―

【全南支社發】全南道에서는 水稻更新種의 第二次採種田에 播種할種類를 다음과가티 決定하고 今春부터 道內各邑面에잇는 播種田에 뿌리게되엿다한다

▲銀坊主 百十七石七斗四升
▲榮光 七十五石九斗
▲多摩錦 七石九斗八升
▲雄町 二石八斗

以上種類에서 採種될벼는 約三萬五百六十五石으로 이것이本道種子벼로 約十五萬町步에 播種될터인데 더욱히 本道米作反別은 約十九萬町步이므로 種子更新은 一年更新인바 一年에半分씩更新하게될터이라한다

光陽棉花共販 豫想意外不振

【光陽】戰時體制下 國策上見地에서 棉花增産에 非常한努力을 加하고잇는 光陽郡農會棉作係에서는 共同販賣豫想高四十萬斤을 目標로 共同出廻에 極力督勵하고잇스나 共販을 開始한지 이미 一個月에 總出廻數量은 겨우 十五萬斤에 不過하므로 아프로 販賣締期까지 順調로 出廻한다하여도 豫定에 達하기에困難하다는바 이共販不振의 原因은 發育期에이르러 長期旱魃로因한減收와 外國輸入品制限으로 將次市勢가 騰貴할것을 豫想한데 基因한것갓다고한다

淸州模造眞珠 工業組合結成

【忠北支社發】別項과가티 忠北의 特産物인 淸州 模造眞珠의 增産을 圖謀하기 爲하야 共同作業場等을 設置하는 一方 同業組合을 組織한다음 增産에注力하여왓는데 同組合으로서는 所期目的의 達成에 至大한 支障이잇다하야 금번 이同業組合을 工業組合으로 改造하기로되여 그동안 道當局에서는 總督府當局과 折衝中이엿는데 工業組合의 改造에對한 準備도 最近에이르러 完備된바 오는十五日 關係面長及有力者를 招請하야 淸州郡會議室에서 工業組合發起人會를 開催하기로되엿다한다

殖産稧 農振運動에 全力을傾注

【全北支社發】全北의 殖産稧는 昨年十一月末現在 三百二十個所이던바 그重要性을認識하고 今後殖産稧를 農村振興運動의 中心團體로 만들計劃을 樹立하야 이미優秀한 更生部落三百三十四所를 選定한後 그中에 一百十四個所는 지난十二月二十二日付로 設立認可한것으로서 漸次的

代用品研究에 全力을傾注
中央試驗所繼續實績擧揚

戰時體制下에잇서서 代用品時代에 直面하야 朝鮮府中央試驗所에서는 代用品工業의 研究에 全力을 傾注하야 이미 染織部에서는 纖毛羽混紡에 成功하엿고 窯業部에서는 陶磁器로 포ー크 匙 煉炭爐 洋服단추 徽章等製造에 成功 化學工業部에서는 糠油의脫色臭와 蠟分分離에 成功하는等 着着實績을 擧揚코잇는데 다시同試驗所에서는 目下如左한試驗에 着手코 이의完成에全力을 기우리고잇다한다

化學工業部
一、朝鮮産油脂原料調査利用試驗
二、油脂의高壓水素添加에關한研究
三、全朝鮮重要工業地帶用水調査
四、特殊鑛物의利用에關한研究
五、農産廢棄物으로 부터의 팔프製造의關한研究
六、棉莖의鹽素及硝酸處理에關한試驗
七、苹果加工試驗

染織部
一、朝鮮向及輸出向織物의試驗
二、朝鮮産蠶繭의品質이 織布에미치는影響
三、純스·파及絹스·파混紡絲布의品質試驗
四、純스·파絲의經糊付及製織試驗
五、스·파絲布의精鍊漂白、染色加工試驗
六、스·파織物의防水防黴加工試驗

窯業部
一、타일製造試驗
二、막네샤耐火材研究
三、朝鮮産에依한防器試驗
四、窯業原料調査及試驗

商品市勢
十四日

▲果實類
梨(早生赤)三貫五 二·四〇 一·五〇
同(今村秋)三貫五 二·〇〇 一·八〇
同(晩三吉)同 二·六〇 二·四〇
密柑 四箱 [illegible]
蜜柑 大箱 [illegible]
國光(大邱)三貫 [illegible]
同(鎭南浦)四貫 [illegible]
레몬 一貫 [illegible]
金柑 [illegible]

▲海産物
乾明太新(元山一駄) [illegible]
同(西湖津同) [illegible]
同(退潮 同) [illegible]
同(前津 同) [illegible]
鹽古同魚百手上品 [illegible] 中品 [illegible]
生刀魚百尾 大 [illegible] 中 [illegible] 小 [illegible]
乾大口(元山)百斤 [illegible]
同(北海道)百斤 [illegible]
烏賊魚 百斤 [illegible]
新生大口 一箱 [illegible]
明太子 一桶五貫 上品 [illegible]
明太子(咸南産)松印一樽 [illegible]
同 竹印一樽 [illegible]
同 梅印一樽 [illegible]
生明太 同一駄 [illegible]
江原道新乾明太入荷大一駄 [illegible] 中 [illegible] 小 [illegible]
鹽靑魚 百級 [illegible]

▲菜蔬
生靑魚(浦項産)一級 二·五〇
(統營産)煎子大羽十貫 [illegible]
同 中羽 同 [illegible]
同 小羽 同 [illegible]
海苔河東産 天印 四十束 [illegible]
地印 四十束 [illegible]
光陽産 雪印 四十束 [illegible]
月印 四十束 [illegible]
白菜 十貫 [illegible]
玉葱十二貫入一個 [illegible]
白葱 一貫 [illegible]
土蓮 同 [illegible]
甘藷 同 [illegible]
馬鈴薯 同 [illegible]
玉菜 同 [illegible]
酢登石油箱 [illegible]
長大根 十個 [illegible]
(京城圓會社調査)

▲農産加工品
麥稈眞田單四菱朝鮮産反 [illegible]
經木眞田內地産 [illegible]
杞柳朝鮮産 一貫 [illegible]
薄荷草朝鮮産 同 [illegible]
漆 朝鮮産 同 [illegible]
椎茸 鮮 同 [illegible]
楮內地(黑皮)一斤 [illegible]
楮 〃(白皮) 同 [illegible]
乾繭 內地 十貫 [illegible]
乾繭 朝鮮産 百斤 [illegible]
荏子油 同 一罐 [illegible]
胡麻油 同 同 [illegible]

▲穀用叺及繩
指定價 天 地 人
京畿 一枚 [illegible]
群山 同 [illegible]
忠南 同 [illegible]
慶北 同 [illegible]
慶南 同 [illegible]
榮山浦 同 [illegible]
實價全南 同 [illegible]
京畿 同 [illegible]
繩(十五키로袋 自白米 二分八厘) 至四分 [illegible]
穀用繩(玄米) 自四分二厘 至四分五厘 [illegible]
蓆繩 [illegible]

▲肥料
石灰 窒素(一月各渡鮮) [illegible]
硫安 同 [illegible]

(穀用叺及繩 續)
蓖麻子油 內地 同 [illegible]
棉實油 木浦 同 [illegible]
白絞油 內地 同 [illegible]
乾蓮根 朝鮮物 一斗 [illegible]
고사리 朝鮮産 百斤 [illegible]
干瓢 [illegible]
番椒 朝鮮産 百斤 [illegible]
同 刻 各地同 [illegible]
同 粉 同 同 [illegible]
麥粉 二 國 京城三斤 [illegible]
同 二 國 同 〃 [illegible]
同 日之出印 同 〃 [illegible]
馬鈴薯澱粉 北海道十二貫 [illegible]
葛粉 內地一樽 [illegible]
椎茸 醬 島 三斗五升 [illegible]
木茸 百匁 [illegible]
寒天(角) 一枚 [illegible]
栗 虫 巢 同 [illegible]
千切大根 十貫 [illegible]
落花生油 內地 一罐 [illegible]
大豆油 同 [illegible]

▲家畜飼料
硫安 同 [illegible]
過燐酸아루미나 同 [illegible]
硫酸加里 同 [illegible]
安東豆粕 一枚 同 [illegible]
豐年大豆粕 一月限 同 [illegible]
胡麻油粕 百匁 [illegible]
硫化燐安 一〇貫 [illegible]
加里安 同 同 [illegible]
過燐酸(沖渡) 同 [illegible]
安燐加(現物軌道渡)十貫 [illegible]
地和化成肥料(現物渡)十貫 [illegible]
粉末配合 産卵鷄用 一二五斤 一號品 二號品 [illegible]
同 雛用 [illegible]
同 中雛用 [illegible]
同 三種配分粉餌 [illegible]
成鷄用四種配合粒餌 上 特上 普 [illegible]
同 三 [illegible]
初生雛用完全配合飼料 一〇斤 [illegible]
辛 스 마 [illegible]
玉蜀黍 (丸) [illegible]
同 (中割) [illegible]
同 (粉末) [illegible]
高粱 (丸) [illegible]
同 (粉末) [illegible]
玄 米 五斗 [illegible]
屑 米 〃 [illegible]
大 麥 〃 [illegible]
無砂小麥 七五斤 [illegible]
骨 粉 一〇〇斤 [illegible]
魚 粉 十五貫 [illegible]
가 리 가 一〇〇斤 [illegible]
히 비 스 八五斤 [illegible]
干鰯粕 一〇貫 [illegible]
三菱配合中雛用(完全) 三五斤 一期用 二期用 [illegible]
成 鷄 用 特一二五斤 [illegible]
同 〃 同 別 [illegible]
三共成鷄用 一號 同 [illegible]

▲農藝藥品
同 二號 [illegible]
同 日配號 二 同 [illegible]
同 中雛用日配號 同 [illegible]
同 初雛生用日配號 同 [illegible]
同 成鷄基礎飼料 一〇〇斤 [illegible]
同 三種混合粒 一二五斤 [illegible]
同 三種粉餌 同 [illegible]
同 魚粉(特上) 二貫 [illegible]
砒酸鉛 一封度 [illegible]
改良가제인 〃 [illegible]
데리스石鹼 五百瓦 [illegible]
마루보르도ー 二封度 [illegible]
除 虫 菊 一封度 [illegible]
볼레리ー푸르% 一罐 [illegible]
結晶硫酸銅 一〇〇斤 [illegible]
粉 末 同 同 [illegible]
生石灰 四 [illegible]
골드리ー푸 二百度 [illegible]
상게이粉狀데리스 二百瓦 [illegible]
驅虫用煙草粉 一貫 [illegible]
쿠레오소ー트 一罐 [illegible]

▲家畜類
鷄 卵 一貫 [illegible]
米 卵 同 [illegible]
生 鷄 同 [illegible]
生 豚 百匁 [illegible]
鷄 兎 百個 [illegible]
鮮 卵 十羽 [illegible]
四季鳥卵 一罐 [illegible]
豚毛(原毛) 百個 [illegible]
同 (撰毛) 百斤 [illegible]
雛 一羽 [illegible]
羽 毛 一貫 [illegible]
雉 一羽 [illegible]
鴨 一羽 [illegible]
(朝鮮鷄業協會調査)

江原道墨湖港 組油肥製造業 羅學甫 電話四〇番

江原道墨湖港 江陵産業株式會社 社長 韓哲愚

江原道墨湖港 水産 鰮油肥製造業 海陸物産 貿易商 海陸物産合資會社 金振海 朴開春 鄭然轍 電話三四番

江原道墨湖港 東海水産社 出張所 朴東株 電話四八番

江原道墨湖港 スマイル食堂 電話四一番

江原道墨湖港 丸一回漕店 電話一〇三番

江原道墨湖港 大衆食堂 電話四七番

望祥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電話一〇九番

江原道墨湖港 俞鎭國 電話二五番

墨湖漁業組合 職員一同 電話六番

江原道墨湖港 和洋百貨 東洋百貨店 主 全榮泰

江陵郡望祥面 面長 韓昌愚

江原道墨湖港 朴 東光醫院 電話東三五番

江原道墨湖港 土木請負 朴永煥工業所 電話一〇六番

江原道墨湖港 船舶運送 レール引上業請負 三共造船所 電話一〇四番

江原道墨湖港 澤山食堂 電話六五番

三陟郡北三面泉谷里 木商 權永燮

江原道墨湖港 三成製材所 主 金畊起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代理店 江陵酒類株式會社江陵一手販賣店 東湖煉瓦工業所

材木 木炭 穀物 酒類 三榮商會 江原道墨湖港

江原道墨湖港 新光社印刷所 取次電話三三番

江陵郡墨湖港 鰮油肥製造業 崔準集工場 電話五四番

江原道墨湖港 車一弘

江陵郡望祥面發翰里 李錫華

江原道墨湖港 運送荷役 崔鳳集商店 電話六九番

江原道墨湖港 公醫 金剛醫院 李榮永 電話五一番

江原道墨湖港 機械製作修繕一式 墨湖鐵工所

江原道墨湖港 港灣工業株式會社 朝鮮出張所 電話三二番

江原道墨湖港 日光洋服店 電話三三番

墨湖港驛前市場 綿布木綿 安興商店

江原道墨湖港 安東旅館 主 金七鎬

江原道墨湖港 朴延鎬

江原道墨湖港 食料雜貨 東海物産社 主 李相喆

望祥面發翰里 區長 崔元圭

江原道墨湖港 和洋家具 金物 硝子各種 三榮工作所 主 李鍾瑞

江陵郡墨湖港 片岡修一

江陵郡墨湖港 朴 至誠醫院 電話六七番

江陵郡墨湖港 誠心理髮舘 主 金昌善

江原道墨湖港 釜山理髮舘 主 林鍵源

江原道墨湖港 興湖穀物商會 主 崔再煥

江原道墨湖港 海東冷麵屋 主 李福成

江原道墨湖港 墨湖旅舘 主 金賢卿

端川

端川警察署 署長 德田正治

汝海津駐在所 甑洞國防義會 廣泉支部 堡巨支部 蓮臺支部 新滿振興委員會 黃谷駐在所 奇岩駐在所 龍崗駐在所 龍源支部 甑山支部 新德支部 龍川支部 大新駐在所 加元駐在所 上農支部 雲承支部 吾夢駐在所 古城駐在所

端川 カフエ春日舘

端川北林木材株式會社

端川 永樂園 主 李景厚

水下古城 中央醫院長 韓觀熙

端川 金季善 農具商

端川郡內 公立學校團

端川郡端川面 職員一同

端川 咸新舘

端川 徐春植商店

栢子洞酒造場 主 姜理允

端川郡農會

端川 福州鑛業事務所 成田竹次郞 李泰周

端川 安昌柱商店

崔東春

端川邑 李均家具店

石黑松之助

端川 崔澤淵商店

端川邑內 尹夏州麵屋

端川和信連鎖店

端川水下古城 古城舘

端川 南大水利組合

端川 廣斗金融組合

端川 三盛精米所

端川郡新滿面事務所 職員一同

金周奐飮食店

松島商店

金允浩

端川商事株式會社

許昌祿商店

端川稅務署

金洛承藥局

端川 李鴻洙

端川 廣泉酒造場

劉仁壽

咸國衡商店

端川 金德熙

參禮

參禮穀物組合

完州郡參禮面參禮里 三和殖産株式會社 職員一同

參禮 米穀商 黃斗賢

益山郡王宮面光岩里 李奉承

益山 王宮面光岩里 鑛主 李殷承

益山郡春浦面雙亭里 崔鳳來

全州府豐南町 柳永昌

參禮 鑛業家 崔錫天

參禮金融組合長 權日用

參禮 米穀商 李承玉

益山郡王宮面興岩里 吳普善

參禮 米穀商 林秉雲

參禮 尹建重

益山郡王宮面興岩里 李完承

完州郡參禮面參禮里 飮食店營業組合

參禮面職員一同

參禮乾物商 姜金玉

參禮 穀物商 河在雄

參禮驛前 崔應鎬

參禮 肥料商 朴相龍

參禮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益山郡春浦面雙亭里 崔炳龍

楊州

楊州稅務署

楊州酒造組合

各種누비及絹絲製造都散賣 仁榮商會 金仁淑 本店 京城府樂園町六五 支店 京城府鍾路四丁目六五 電光③二三九番

京畿産業株式會社議政府支店 松本五郞

楊州郡楊州面佳陵里 姜振九

議政府郡廳前 中央醫院 院長 洪恩裕

京元線議政府驛前 議政府理髮 尹点龍

楊州和道面長 崔浚植

京元線議政府驛前 司法書士 李鳳五

京元線議政府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議政府代行營業所 代表者 金濬榮

京元線議政府驛前 柳醫院 柳基春

議政府公立尋常小學校 小深田順治

楊州郡榛接面長峴里 長兼雜貨商 李晩燮

京元線議政府驛前 運送店 柳麟熙

九里面職員一同

楊州尋常小學校 職員一同

大五是川

惠山線大五川驛前 雲興面事務所職員一同 大五川驛職員一同 雲興公立尋常小學校職員一同 公醫 韓承尙

雲興面東新里四五 光進書堂 設立者 金鳳現 校長 金鳳勳 財務 金喆萬 敎員 全景善

雲興面大中里 大中書堂 設立者 李昌祚 校長 趙敬直 財務 朴鼎錫 敎員 李鶴順 朴楚南

惠山線大五川驛前 鄭銀山

惠山線大五川驛前 荷主運輸組 吉盛商會 代表者 崔七星

雲興面白岩里 許壽萬

纛島

朝鮮料理 京城市外西纛島驛前 纛島舘

三南에서平南으로 二千名鑛夫進軍
三神、元灘、德山等七個炭坑에 第一次로今月中五百餘名先着

【平壤支社發】최근 평산노동자 기근으로 지하자원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잇섯는데 금번남조선지방에서 어천여명의 대량노동자가 오는 삼월까지 드러오기로 결정되엿다는바 이제 제일차의 이입내역을 보면 오는사천일 삼신탄광(三神炭坑)에 백오십명 원탄(元灘)탄광에 백십오명을 필두로 십팔일에 덕산(德山)탄광에 백이십오명 흑령(黑嶺)탄광에 사십삼명 십구일에 강동(江東)탄광에 백십오명 이십일 대보산(大寶山)탄광에 십팔명 대보(大寶)탄광에 오십구명 합계광산에 오백이십오명이 이입된다고한다

閭中婦女窃盜團 延白署에逐捕盡

【延安】연안(延安)읍내에 거주하는 귀중부녀들이 단을조직하야가지고 동읍내 큰상점으로도라다니며 물건사라오체하고 주단포목 기타내복등을 절취하고 잇다는 단서를어든 연백경찰서 사법계 형사는 민활이 활동하야 지난십일에야 체포하엿다는데 절도단장은 연안읍불정리송판점리 김언녀(同邑觀亮里金言女)(假名)이며 그이하 단원은 동읍 女(假名)가튼동리 황갑숙(黃甲淑)(假名) 동읍 사양리 노판선(同邑山陽里盧判仙)(假名)이라는 처녀까지 한사인절도단을 조직하야 소화십이년겨울부터 그단의 목적행사를하여오던터로 경찰은 단원전부를체포하고 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産米增殖案挫折
現狀確保에로邁進 國庫補助半減되여慶南道失望

【慶南支社發】경남도농무과에서는 총독부의 산미이백만석 증식계획에 순응하야 십사년도부터 삼개년계획으로 이십오만석의 증산계획을 세우고 신년도예산에 그에 소요한 예산을계상하엿든바 저번 총독부의 산미계획의 대변경에 의한 증산중지 현산확보(現産確保)주의에 따라서 경남도에서도 이근본방침에 추수하기로되여 자연증산계획은 중지하게되엿다

그리하야 국고보조 팔십만원은 반감되엿스며 그사십만원의 보조로 현산확보에 필요한 병충해구제 종자개량등에 충당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얏다

職員間亂鬪劇 二名은遂警察에

【洪城】홍성도립병원에는 직원끼리 싸움끝에 일대격투가 일어나서 그중두명은 방금경찰서에서엄중한 취조를 밧고잇다고하는데 그자들은 오래전에 서로반목하여오든끝에 수일전에 사무실에서 대판싸움한것이라한다

亡父의遺志를이어 又復巨金을喜捨
五木簡易校에 金斗煥氏美擧

【牙山】충남아산군신창면신달리(忠南牙山郡新昌面新達里)에 거주하는 김두환(金斗煥)씨는 오목간이학교(五木簡易學校)에금 이천원을 기부하고 동교를 제이소학교로 승격하야 주기를당국에 간원하엿다는바 학교당국에서는 씨의 특지에 감읍하야 마지안는동시 승격문제에 대하야도 적극적으로 활동할모양이며 당초에 오목간이학교가 탄생된 동기는 김두환씨의 부친 고김동구(故金東九)씨가 매년 입학기가되면 배우려하나 배울곳이 업서 도로에 방황하는 이세국민을 위하야 금일천삼백원을 자진기부하는 일방 면내유지의 친동을 어더 간이교의설립을 보게 되엿던바 불행히도 김동구씨는 작년봄에 서거하얏스므로 일반은 애통하야함을마지안턴바 금번 그의영식인 두환씨로부터 전기 대금을 희사함에 대하야 경모하는동시에 씨는 상신전청년으로서 친지(親志)를계승하야 교육사업에봉사함은 현대청년으로 보기드문행사라하야 모범의 적이되엿다고한다 (사진은 김씨)

漁組公金橫領犯 釜山潛伏中被逮

【慶南支社發】포항어업조합(浦項漁業組合)의공금 이천원을횡령하고 행방을감춘 횡산(橫山)이 부산에잠복햇다는 정보를접한 부산경찰서에서는 그의소재를수사중 지난십이일밤 부내영주정 모씨집에숨어잇는것을 발견하고검거하야 지금여죄를추궁중이다

鰒魚먹고中毒 父子가死傷

【保寧】보령군주산면 야룡리(保寧郡珠山面野龍里)에 거주 하는 임형재(任衡宰)는 유일 주사지장에서 복어(河豚)를 사다가 국을끄려서 그아들 갑순(甲順)과함께 먹엇던바 다가치 중독되야서 고통타가 십일오전한시경에 임형재는 사망하고 그아들은 다행히 회복되엿다하며 그부락에 역시 동면삼복리(三伏里)사는모씨도 복어를사다가 국을끄려먹고는 일시중독이 되아서 소동을일으켯다한다

法院等官印僞造
土地를詐欺賣喫 咸興署員이探知逮捕

【咸南支社發】지방법원장과 관게판인(官印)을위조하고 등기수속을하야 다른사람의 토지를파라먹으려고하던 사기군이 괴체-함흥서에서는 지난십이일오전한시쯤 부내대화정(大和町)에서청년을 인치하야 취조하얏는데 그는부내흥서정(興西町)에서 사는 홍서권으로함흥지방법원장과 등기계주임파 함흥부윤의 인장들을 위조하야 자기의계모(繼母)명의로잇던 소유임야를 자기명의로 돌려파라먹자고 하다가 아직서류를미처 맘놓지못하고잇는것을 자백하얏다 그리고 함흥부외 한모(韓某)로부터 토지약삼백평 등기이전수속을하야 달라고 부탁하야온것을 그사람의 인장을위조하야 자기명의로 이전하고서파라먹은 사실을 발각하얏다 인장 위조의전문한으로 경찰서에서도 여죄를 추궁하는중이다

機械部員總辭職
原因은待遇問題와主任排斥 江西無煙炭坑不祥事

【江西】조선무연탄주식회사(朝鮮無煙炭株式會社)경영인 강서장산탄광(長山炭坑)에서 지난번에 차별대우문제와 인부모욕사건관계로 한때경판까지 출동지화한 사건이 잇슨지 얼마되지안흔이때 또동회사경영인 강서용정탄광(江西龍井炭坑)에서도 대우문제로 이십여년간종업원을 위하야 헌신적으로 근무하고잇는종문자등 약이십명이 총사직원결의한후 동회사채탄과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방금회사측의 태도를 주목하고잇는바 일반은 동회사의 처사에 비난이절고한 모양이데 사건내용을 탐문한바 에의하면 다음과갓다

동탄광의 기계파주임원전(元田)이란자는 작년칠월경 동탄광기계부주임으로 임명되여 이래종사하여 왓섯는데 지난봄부터 항상 아모것도 아지도 못하면서 아는체하고 이십년혹은 십여년간 근무한 기계부원들에게 자기 주장만 올타고 하면서 기계부원이십여명을 사탐가티 대접해주지안코잇던중 하로는사소한일을 트집으로 기계부원들은 실수하엿다하야 가진욕설을다하며 자기말에 불복하면 게나오게할테더라 금년『지련』을비롯자들도 피장한데 말하야 모못게하겟다는등 위협적 언동에 기계부원들은 분개하야 이러한 몰인정한 주임미테서는 함께일하고 잇슬수업다하야 지난달중순경 진정서를 회사당국에 제출하고 금년정월부터는 일체히 출근을 거절한후 회사의태도에 불만을품고 전부사직계를 제출하야 가든지 잇섯는데 다음과갓다

小野副課長 談

우리는 어데라고 말할수업습니다 회사측에대한것이아니고 게인적 자기주임을 상대로 아마 말성이잇는것가튼데 그러라고 즉시 그사람을 어데로 보낼수도업는것이고 또는 지금일할나 오지안는 사람들에게 회사측에서 오라고 할수도업는데 아마 되아서 소용업을것이라고 합니다

機械部員某氏 談

무어라 말할수업지요 나뿐만아니라 저외에도 이십년씩이나 이탄광에서 일하든사람이 한두 사람이아니고 도는십년 혹은오륙년씩 전부가 근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대탄광에서 일을하다가 그만두는것이야 우리로서도 얼마나 섭섭하겟습니까 그러하나 할수업는일이니까 하는수업지요 그리고 진정서에대하여도 답두합니다 원전(元田)주임을 다른게로 옴겨주던가 또는 이회사에서 경영하는 타광으로 보내던가 다른곳으로 보내도록하는것인데 회사측에서 보내지안는것은 우리를 무시하는것이겟지요 그리고 이이상 더 말할수업습니다

煙草賣上八萬圓增 春川出張所管內

【春川】경성전매국춘천출장소관내인 칠개군파일개면의 일년간 연초매상고총액을보면 작년일만사백사원에달하는데 전년에 비교하면 육십이만삼천팔십오원으로 일할사분의 비례로 팔만칠천사백십구원이 증가되엿는데 재일만히 소비되는십이월의 판매고를보면 구만사천오백칠원으로 전년동월보다 일만칠천사백오십원이나증가되야 이월이년호리이라는대량증가를 보앗다 불경기의비명을 올리고 잇스나 기호품의소비는 증가일로에 엿다는것을 알수잇다한다

更生園患者脫去
釜山에潛伏中逮捕

【全南支社發】그섬비의시설에잇서 세계제일로 자랑하고잇는 나병자의 낙원소록도개생원에수용되여잇는 환자아홉명이 탈주한사실이잇다 세간에서말하는 나병자의 낙원이라는 소록도개생원생활도부자유와 권태를느꼈음인지 또는 부모형제와 고향생각이 낫섯슴인지 환자아홉명은 지난구일미명에다른환자와 직원들이 고요히 잠들어잇슨틈을타서 개생원을탈출하엿섯는데 두명의 환자는즉시 개생원직원에게 붓잡히고 주동자백형달(白亨達)등 여섯명은 어데로인지 종적을감추엇스므로 어찌할수업섯는데 그중은 자동차를대절하야 어느듯 부산부초량리(釜山府草梁里)모병자부락에 도착한것을 신임일에소관경찰에 체포하엿다한다

郡北面長奇禍

【忠南支社】지난십일 오후열시경 부내 본정금융조합(本町金組)아페서 자동차(小野氏所有 忠南第五三○號)의 충돌로 약삼주간을요할 부상을바든 옥천군 군북면(沃川郡郡北面)면장인 송병승(宋秉昇)씨는 그후도립의원에 입원가료중이라는바 경과는매우조타고한다

技術者養成講習所
新朝鮮無煙炭會社計畫

【平南支社發】산업진흥의 물결어 바야흐로 고조되여 업게는 노동자뿐아니라 기술자의 부족에 허덕이며 그회사에 망분하고잇는데 그에이한 곤난을 가장심각하게 당하고잇는 신조선무연탄회사(新朝鮮無煙炭會社)가 문제중의 평남동업회교 실현여부에 압서서 적절한 계획을세우고잇다 동회사에서는 부족을 충당하고잇는 기술자문제의 자력적 해결을위하여『기술자양성강습소』를 설치할 계획이라한다 이는 오는사월부터 대동군대보탄광(大寶炭坑)에서 부근소학교의교사(오후)를 빌리여가지고 개강되는데 입소자격은 중등학교졸업생으로 정원은 육십명 수업년한은 일년이나 그중육개월은 각탄항에서 실습을하고 육개월은 상당한 기사 강사들에 의하여 기게 전기 채광등에 관한 학술적강습을 밧기로되엿다 대우는 강습중에는 숙사기타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이십오원을 급여하다가 졸업하면 곳 동회사에서 채용하여 육십원이상의 월급을 지급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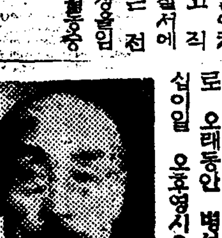
第二回物價委員會 今月下旬開催豫定

【春川】전시하 물가등귀를 억제하는 공정물가결정은 객년십이월 상순경 위원회의 협정을보아 이래실시중에잇는데 금월하순경 제이회 위원회를개최하야 고무, 피혁, 알미늄, 알마이트 등의 제품가격결정과 전번 협정된 석탄가격에 변동이잇스며 연제품, 모제품, 목탄, 연탄등의가격은 당분간그대로 지속시킬터이라한다

一家族을鏖殺
奉天鐵西街의慘劇

【奉天】지난십일오전열두시경봉천시철서구대칙관도향일가(鐵西區大則官道向日街)일호에 거주하는 장모(張某)는 이웃집 왕모(王某)의집 문이열리지안흠으로 어상히여겨 억지로 열고 들어가본즉 전기 왕모와 그의 안해 그리고 십세가량된 아이가 어느자에게 예리한 칼에처참히 살해된것을 발견하고 즉시 사실을 소관 철서경찰서에 급보하엿는데 철서서에서는 전사법진을 총동원시켜 현장을임검하는일방 범인수사에 활동중이다

平壤教育界恩人 趙僎氏別世



【平南支社發】평양교육계의 공로자인 조선(趙僎)씨는 노환으로 오래동안 병석에누어잇든바 십이일 오후영시오십분경 부내 대찰리(大察里)육십사번지 자택에서 칠십오세로세상을 떠낫는데 씨는 지금으로부터 사십여년전 아직 조선에 신학문이드러오기전에 깨다른바잇서 이미 세상을떠난 미국인 배위량(裵偉良)박사와 손을마조잡고 지금은 업서진 숭실학교(崇實)와 숭실전문(崇專)을 창설하고 삼십여년간을 교육계에 종사하든것으로 그문하에서 키워난 일꾼이 사천여명에달하야 오늘에는 세계적으로 흐터저 활약하고잇다고한다 발인은 십육일오후한시인데 영결식은 부내서문외 연병장에서 거행하리라한다 (사진은 조선씨)

殉職上田部長 十四日署葬擧行

【春川】금강산의 용산(龍山)을 근거지로한 불온유사종교단체가 발로되야 결사적 탐색대의 검거에 종사하든 통천서(通川署)근무상전작시(上田作市)순사부장은 문허지는 눈사태에 밀리여 용연폭포(龍淵瀑布)에 떠러저순직하야 지난십일 사체를발견하얏는데 장례는 통천서장(署葬)으로 작십사일 오후이시 비창한 가운데 집행한바 산촌경찰부장(山村)도 열석하얏다한다

靑샤쓰窃盜團八名 釜山署에一網打盡

【慶南支社發】부산서 사법계에서는 지난십이일 부내대신정방면에서 김용운(金龍雲)등프른샤쓰단 여덟명을 검거해다엄중취조중인데 그들은 모두프른샤쓰를입고 대신정방면을 무대로 절도를하자들인데 십세로부터 이십세까지의 청소년으로된 절도단으로 그피해액은 천여원에 달한다고한다

우리道의新年提議 ⑬
江原開發의役軍 勞働者救濟時急
安心就役토록當局의措處要望 江原道篇

조선의 척수(脊梁)지대인 강원도는 원래가 산간지대이라 문화시설이 불비함은 물론 교통발달도 지지하엿다 그러나 근일에이르러 국력개발의 전제로 교통기관 정비촉진에따라 동해선(東海線) 경경철도(京慶鐵道) 경춘철도등 요하철도의 부설공사는 착착진척중이며 와연(蛙淵) 이백오십칠마일의 해안선중 가장 주요한 항으로 되여잇는 죽변항 장전항(長箭港)을 위주로 각항만의 수축공사, 기타 치수국채에의한 하천개수공사 건축 기타토공사는 축년증가하며 강원개척의 기세는비상하다

이에 중대한문제의하나로 모든 건설공사의 중심이 되여잇는 인적요소 다시말하면 노동력문제와 그들 노동자의 대우문제이다

현재 강원도건설사업에 매일 출동하고잇는 노동자수는 근일 도사회과 발표에의하면 광산(鑛山)관계노동자외에

鐵道工事	一一,一六三名
港灣其他土木工事	二,五三七名
治水修築工事	七,八一名

이다 이제기자가 간단하고저하는 매일 출동하는 만오천이나되는 노동자의대우문제다 광산 탄광 노동자에대하여서는 지난해오월십이일부 조선총독부령(府令)제구십칠호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朝鮮鑛夫勞務扶助規則)이 제정발표되여 무한히 희생되는 광부들에게 새로운 힘을주며 동시에 안심하고 취업할수잇게되엿스나 아직도 광산이외의 모든공사노동자에대하야는 부조구제법규제정을 보지못하고 총독부에서 발간한 행정에의하야 강원도노동자조정요항(江原道勞働調整要項)을 재정하고 작년여름부터 이에준하야 상병(傷病)또는 사망할때에 부조구제를 하게되여잇스나 이는법적효력이업스므로 여전히 노동자의 낙복하고 비인도적행위가 비일비재로 이러나는것이다 『부조구제시에는 지방관파편의결정』운운의 내용잇스나 당국으로서는 어데까지든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렴한노동자를 구제하여야 할것이다

文盲退治의捷徑 夜學會擴充하라
警察의度에넘은干涉은큰支障

향학열의 팽배는 전조선적현상이거니와 강원도당국에서도 문자보급운동은 소화팔년도에 농진운동이 시작되자 겨울이되면 농한기를 이용하야 각부락에서 강습야회를열어 지도하여왓다 그러나 규모와설비는 충분치못하야 배움에주린 문맹군을 다수용하지못하엿다 농진운동을 강조하는 당국에서는 계획수행상 먼저 문맹을퇴치하자는점에 착안하야 소화십년도부터 각부락마다 야학회를 장려하고 실시하엿스나 일년도에 개최하야 우금까지 나려왓스나 그수자를 보면

	開催部落	受講者數
昭和十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이상과가티 십년도이래 야학개최부락수는 이천칠백이십오개소에 수강자총수는 만명으로 그중에는 여자가 이만삼천백열한명이 잇다 교과목으로는 산술 조선어 국어를 중심하야 강원도에서 편찬한 농촌교본(農村敎本)을 무상대부하야 왓고 당국에서는 특별고려가잇서 하로속히 어느부락을 막론하고 문맹이그럽자도 업도록해야할것이다 그리고 도당국의확충계획은 전기한바와가티 다음해에 개강하는 부락으로 설정한곳에만 개강하고잇스나 기설갱생부락중에도문맹이 아직 만흔것은 수자가증명하는바로 단기간강습을 전부락에 실시하야 농진운동수행상 선결문제인 문맹퇴치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比覺生)

다 강사는 주로 각소학훈도교등과 면공서직원또는 부락중심인물들이 담당하고잇스며 도에서는 장려금으로 매년약간의 보조를 주고잇다 기간은삼개월내지 사개월간으로 이강습을 맛치면 대개는가계부(家計簿)기입할정도의 학력을잇는조흔성과를 보고잇스나 한가지 유감스러운것은 야학에대한 경찰당국의 허가문제이다 경찰측에서는 사상문제를 이유로부락의 유의한청년들이 솔선하야 개강하려는야학회에 간섭하야 수속이매우까다러운편게로 활충이 여의치못하게되는 예가만다 이허가제의 완화는각부락민측에서도 열망하고잇는바로 좌담회가튼 석상에서도 항상부르짓게 되는것이니 (春川支局 一記者)

無料로通知함
喘息
百日咳의患者에게 저는永年喘息으로 고생하다가 온갓藥을써보앗스나 모다아무효도업서 十餘年來로 藥局에다 명약이되는 불행한身上이되엿던바 天保年間부터 先生의 秘方으로 이약을 試驗하엿더니 同病者에게도 知人에게도 快効를 보앗습니다 ... 此藥을 無料로 通知하오니 葉書로 申込하시요
千葉縣安佐郡 森本作市

輕油、石油發動機
兩名(クボタ)類似品あり 特に御注意を乞ふ
一馬力ヨリ 一〇馬力マデ
クボタ 橫型 アークロ式 ディーゼル機關
BM型四馬力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長本局(八八)

和信萬年筆 專賣特許金펜附 品質保證付
和信本支店各地連鎖店販賣

補陽秘方仙藥 精力丸
京城西大門町 圖岩合資會社

現像、引伸 特價取扱
朝報案內
女子事務員採用

質조코·
냄새조코
거품잘인다
資生堂石鹼 一個十五전

十六日封切
日本映畫史に燦として輝くこの偉業
愛國・純愛・犧牲の精華を彩る 明治・大正・昭和に亘る風雲半世紀日本の姿!
日本人 明治篇 昭和篇
巨匠島津保次郎監督
明治座

工夫中
ノーシン
頭腦가 흐리거나 어수선해서 學習에 能率이 오르지 안을 때에 는 노-신이 잘 듯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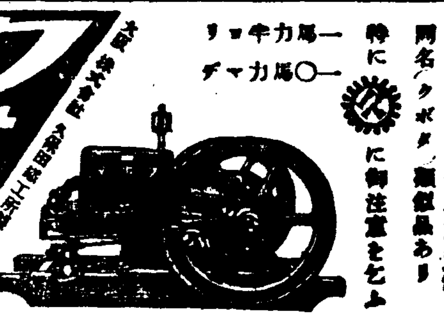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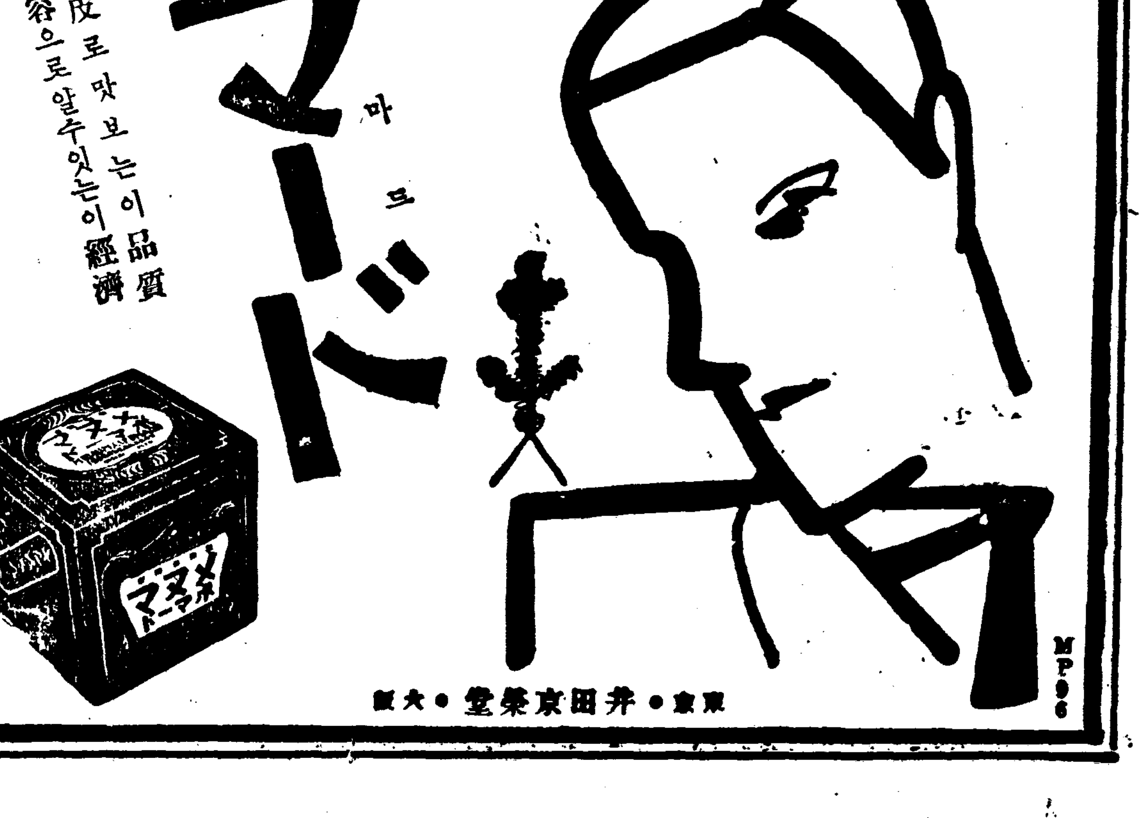
カゴメ ソース
맛잇는料理에 調味는カゴメ!
新界에자랑하는優秀品
カゴメケチヤツプ本舖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效能 食傷 吐瀉 霍亂 嘔氣 酒醉 頭痛 氣鬱 中暑 中寒 水土 不服 船車 眩暈 胸腹 痛
家庭常備 非常時藥 藥價 三圓·五圓
靈藥 救急 天寶水
平壤永生堂製藥社
五大名藥 崔氏秘傳 胎養調經 ネツピリン 滅癬水其他 各種製藥本舖
文泰煥君을滿支特派員으로派送하오니特히愛護하야주시옵
自働電話 四○六七番 振替京城 一四一四八番

第一劇場
東洋劇場

東洋人의頭髮에 훌륭히調和된다
美髮料로서本邦唯一의專門工場이創製한 純植物メヌマ!
不愉快하게 끈적거리지안코 천착하게번질거리지안흐며 薰香典雅하야 毛髮에榮養을 주며감께조타!
整髮·榮養二重髮
メヌマポマード
頭皮로맛보는이品質 內容으로알수잇는이經濟
東京·井田京榮堂·大阪





經濟解說

新商工政策 ①

前商相과對的 新使命四大項目

池田商相에서 八田商相에게 「바톤」이 引繼된 商工政策은 確實히 한轉換을意味하는것이다. 勿論 政策의軌道가 根本的으로다른것은아니나 池田藏相에서石渡藏相에의移向이 本質的으로差異가업는것이라하면 八田新商相이 直接한課題는池田前藏相과는 對蹠的인것이만흔것으로보인다. 問題를項目으로 摘出하면

一、東亞新經濟共同體 即, 日滿支의經濟的關係를確立하는 平沼內閣의新使命으로보면 池田前商相이하고잇던 第三國貿易振興을第一義로하고 圓系國貿易을第二義로하고잇던政策은 此際에根本的으로再轉換하고 圓系國貿易體制確立을爲하야는 第三國과의貿易을 어느程度 犧牲으로하는政策을 八田新商相은 樹立하여야할것이다.

二、池田前商相은 昨年下期의物動計畫에基하야 國內民需(滿支向輸出도包含)의 大幅의制限措置를斷行하고 物資의使用, 配給, 販賣, 加工, 製造, 圓系國輸出을 極度로制限하엿는데 그應急對策도 實施後 半個年이된只今에는 그補正期에 들어왓다. 八田新商相은 이것을如何히 是正할것인가.

三、池田前商相은 物資制限에 너무急하야 그에依하야생기는企業者商人의 休失業對策에 對하야는 實質的으로 何等考慮하지 안엇스나 長期建設에는 國內平和産業關係業者의 恒久的生活維持方針을 樹立하여야한다. 그러므로 八田新商相은 轉業對策을 具體的으로 樹立하야 實行하여야할것이다.

四、國家總動員體制는 强化되는데 이에對應하기爲하야 商工省機構의改革을할必要가잇다 池田前商相은 機構改革은 審議未了이엇스나 八田新商相은 이것을實施하여야한다.

以上의 四大項目이 八田新商相에賦課된使命인데 各項目의具體的內容을 吟味하야보자.

(一) 圓系國經濟體制와輸出振興

支那事變과 將來의蘇聯戰, 英米의經濟戰爭에 備하기爲하야는 形大한軍需資材의 輸入이必要하다 此輸入資金을 調達하는것은 産金增加, 輸出에依한 外貨의獲得에 依할수밧게 업는데 前者는 急速한 增産을 바랄수업고 輸出振興에依하야 國際收支의均衡을 圖謀하는것이 남은手段이다

그리고輸出振興은 池田商相時代에 制期的實의强化를 圖來한것이다 卽滿洲國, 支那, 關東州等의 日本圓系通貨圈이라하는 市場에對한輸出을 直接間接으로抑制하고 第三國에의 輸出을獎勵하는 許多한施設을實施하여왓다

이는 第三國에의 輸出은 外貨를受取하는것이며 또日本의輸出品의原料는 大部分外國에서 輸入하고잇는點을보면 이것은 當然한形勢이다 圓系國에輸出을制限하고잇는物資는 左의四大別로 區分할수잇게다

(가) 輸出禁止, 卽臨時輸出入許可規則에依하야 輸出禁止를當한것 이것은圓系國뿐아니라 第三國向輸出도 禁止되고잇는것

(나) 輸出制限 綿製品은 日本綿絲布東亞輸出組合에 依하야 昨年六月廿日 組合總會에서 支那向 積止를하고 同十一月十四日의 組合總會에서 第三國에輸出할수업는 綿製品에限하야 輸出許可를 認定하기로하고 入札을하엿다

(다) 輸出入링크制에 依하야 圓系國向輸出에는 原料輸入을 크지커지안코 어에依하야 圓系國向輸出을 制限하고잇는것

三國輸出도 制限되어잇스므로 意味의圓系國貿易制限은아니나 支那에必要한 物資도잇스므로 一旦圓系輸出을 이것이다

兎毛皮, 硝酸, 豚毛, 屑又는故纖維品, 屑纖維, 屑中纖維, 나프타린, 硬化中綿物, 아리모니翼, 同製品, 自動車, 自動車部分品(自動車用)아리모니의玩具, 鐵屑, 鉛, 亞鉛, 안티몬, 鉛板(原料輸入除外)샤시1, 內燃機關, 안티프리손에댕

(A) 綿製品링크 綿製品, 毛製品, 人絹製品, 「스파」製品, 和紙, 洋紙 製紙材料及製品, 베니야合板, 等

(B) 特殊링크 麥酒, 硬化油, 石鹼(皮革製品), 硫酸銷, 酸化亞鉛, 炭化石灰, 鐵寸, 鉛丹, 亞鉛華, 寫眞用印刷잉크, 白金鑛, 紙, 세멘트, 硝子板, 寫眞用乾板, 可能纖維製品, 製麻, 銅板

(라) 第四는 物資의使用, 製造, 販賣, 配給의各制限에關한商工省令으로 圓系國向輸出이抑制되고잇는것 鉛, 亞鉛, 錫, 안티몬及此等合金, 皮革製品, 綿製品, 毛製品, 人絹製品

以上과가티 圓系國貿易을 犧牲으로하야잇는데 平沼內閣의 新使命인 東亞新秩序의 建設, 日滿支經濟確立上에서 이것은 不可한것이다 支那의開發資材, 軍需品에必要한物品은 모두日本에서 供給하여야할터인데 이것을制限하는것은 今次聖戰의 目的에도反하고 이것은 또同時에 國內業者의 失業을促進하며 支那에잇어서의 圓의인플레를(軍票交換에依한) 豫防하기爲하야는 日本에서 輸出하야 圓紙幣를回收할수박게업는點을 考慮하면 圓系國貿易을 第一義的으로하고 第三國貿易은 第二義로하는 根本方針을 樹立하여야하겟다 八田新商相은 目前의 池田前商相의 第三國貿易振興을 依然히 持續할지 或은 平沼內閣의 新使命에基하야 圓系經濟不動의方針을樹立할지 그에賦課된 課題가 重大한것을認識하여야할것이다

—(계속)—

事變以來物價趨勢 昨年六月이最高

物價抑制로九月까지는反落 다시騰勢裡에越年!

鮮銀都賣物價指數

鮮銀調査에 依한京城都賣物價指數(明治四十三年七月을 一〇〇으로基準算出)를보건대 十二年中과十三年中의 各月別總平均指數는 如左하야 十二年七月事變發生前月인 六月의 指數가二〇四、〇八로서 昨年十二月까지에잇서 最高月이 事變滿一年인 昨年六月이二五〇、八五로서 實로二割二分九厘의 大幅昂騰이後 物資總動計畫에 依한物價抑制政策이奏效하야 九月까지 漸反落되어二三九、〇二까지 떠러젓섯스나 다시 騰勢를밟어 昨年末에 와서는 二四四、九三으로 比前月末一分二厘二毛高, 比前年末一割五分三厘三毛의 騰貴를示하엿다

	十二年	十三年
一月	二〇三、七〇	二三六、〇二
二月	二〇四、八〇	二三八、五五
三月	二〇七、四一	二三八、九一
四月	二〇九、〇七	二三三、四四
五月	二〇四、九五	二四五、八九
六月	二〇四、〇八	二五〇、八五
七月	二〇四、三三	二四五、八一
八月	二〇五、五五	二四〇、四〇
九月	二〇四、二七	二三九、〇二
十月	二〇四、三三	二四一、〇五
十一月	二〇八、九六	二四二、八四
十二月	二一二、二七	二四四、九三

무엇이얼마올럿나 事變前과舊臘比較

昨年十二月의 各品種別物價指數를 事變發生直前인 十二年六月의 指數와比較해보면 調査品種三十品中떠러진것은 豆粕一割一分低, 三八綃一割九分低, 生絲七厘低의三種뿐이오 其外는全面的昂騰이어서 燐寸十五割高를筆頭로如左한 大幅騰貴를 보이어 總平均指數는 二割高이엇다

	十二年六月	十三年十二月	比較
玄米	[illegible]	[illegible]	四分高
精米	[illegible]	[illegible]	二分高
大麥	[illegible]	[illegible]	七割七分高
小麥	[illegible]	[illegible]	一割七分高
大豆	[illegible]	[illegible]	六分高
小豆	[illegible]	[illegible]	四分高
粟	[illegible]	[illegible]	一割四分高
和金巾	[illegible]	[illegible]	四割三分高
三八綃	[illegible]	[illegible]	一割九分低
綿絲	[illegible]	[illegible]	八分高
生絲	[illegible]	[illegible]	七厘低
繰綿	[illegible]	製綿 [illegible]	
石油	[illegible]	[illegible]	四分高
石炭	[illegible]	[illegible]	五割二分高
木炭	[illegible]	[illegible]	七割二分高
松薪	[illegible]	[illegible]	八割二分高
小麥粉	[illegible]	[illegible]	一割五分高
砂糖	[illegible]	[illegible]	六分高
醬油	[illegible]	[illegible]	六分高
再製鹽	[illegible]	[illegible]	三割一分高
日本酒	[illegible]	[illegible]	八分高
麥酒	[illegible]	[illegible]	一割一分高
豆粕	[illegible]	[illegible]	一割一分低
硫安	[illegible]	[illegible]	二分高
木材	[illegible]	[illegible]	六割六分高
金物	[illegible]	[illegible]	四割五分高
板硝子	[illegible]	[illegible]	一割二分高
牛皮	[illegible]	[illegible]	三割五分高
洋紙	[illegible]	[illegible]	三分高
燐寸	[illegible]	[illegible]	十五割三分高
總平均指數	二〇四、〇八	二四四、九三	二割高

比前月品別騰落

十二月中의 京城都賣物價指數를 品目別로보면 騰貴十二品, 低落八品, 保合十品이엇다 即

◇騰貴品(十二品)—大麥, 小麥, 小豆, 粟, 生絲, 製綿, 木炭, 松薪, 小麥粉, 砂糖, 牛皮, 燐寸

◇低落品(八品)—玄米, 精米, 大豆, 三八綃, 再製鹽, 豆粕, 硫安, 洋紙

◇保合(十品)—和金巾, 綿絲, 石油, 石炭, 醬油, 日本酒, 麥酒, 木材, 金物, 板硝子

東京都賣物價 比前月五厘高

日銀調査=十三年十二月의東京都賣物價指數는 二五五、一로前月에比하야 五厘의 騰貴이다 調査品目 百十品中騰貴四十三品 低落十九品 保合四十八品으로그騰落品目과 類別指數의騰貴率은如左하다 (△印低落)

	前月比 %	前年同月比 %
食用農産物	一·四	六·四
其他食料及嗜好品	〇·六	七·三
纖維原料品	〇·三	一·七
布帛類	〇·一	三·四
建築材料	〇·八	一五·二
金屬類	〇·一	△一七·三
燃料	△〇·六	六·四
肥料	一·五	四·五
工業藥材	二·五	二·三
其他	△〇·五	一五·九

鮮銀兩理事交替

鮮銀에서는 東京駐在의星野理事를京城本店에 移駐시키고 本店의大塚理事를東京支店에 移駐시킬內意인데 今回漢銀의 代表取締役인 橫瀨理事가 今回辭任하고 그代身에 星野理事가選任되기로 內定된것으로보아 右理事의 駐在地更迭은 近近實行될모양이라한다

全朝鮮手形交換 下半期總計十二億圓

比前年同期二億餘圓增加

手形交換所調査=昭和十三年下半期中의 全朝鮮手形交換高는總計一、五六三、〇四五枚, 金額一、二三六、九七三千圓에 達하야이것을 上半期에比較하면 十萬三千枚 金額一億五百六十三萬九千圓의增加이오 前年同期比較는三萬二千餘枚 金額二億二千四百十六萬九千圓의 增加로서 下半期總計의 十二億三千六百萬圓은新記錄이엇다 前年同期比較는 如左하다(單位千圓)

	十三年下半期	前年同期比較
京城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南浦	[illegible]	[illegible]
淸津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一、二三六、九七三	[illegible]

順天尿素工場 鐵材難으로難捗

朝鮮化學의 順川尿素石灰工場은 本年度內操業을 目標로 그建設準備를 急히하고잇스나 鐵材難으로 進捗이 困難한狀態에잇스므로 同社專務 水島勝正氏는 十四日 飛行機로 入京하야 鐵材配定에對하야 總督府와 交涉하기로 되엿다한다

全朝鮮銀行膨脹

預金=六億二千四百餘萬圓 貸出=十億六千八百餘萬圓

昨年十二月末現在의 全朝鮮銀行預金及貸出高는 預金貸出이모두 新記錄으로 膨脹을 보이엇는데 即預金은 六億二千四百三十萬八千圓 貸出은 十億六千八百八十三萬五千圓으로 이것을 前月末現在에 比較하여보면 預金에 잇서서는 三千五百三十萬八千圓 貸出에잇서서는 二千二百七萬一千圓으로 各其增加되엿다 또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預金에잇서서는 一億一千百八十五萬四千圓 貸出에잇서서는 九千五十五萬三千圓으로 모두顯著한 增加인바 十三年中의 各月末의預金貸出高를 示하면如左하다

(單位千圓)

	預金	貸出
一月末	[illegible]	[illegible]
二月末	[illegible]	[illegible]
三月末	[illegible]	[illegible]
四月末	[illegible]	[illegible]
五月末	[illegible]	[illegible]
六月末	[illegible]	[illegible]
七月末	[illegible]	[illegible]
八月末	[illegible]	[illegible]
九月末	[illegible]	[illegible]
十月末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末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末	[illegible]	[illegible]

以上과가티 預金의 最高記錄은 十二月末의 六億二千四百萬圓이며 最低記錄은 一月末의 四億七千八百五十六萬二千圓이며 貸出의最高는 亦是 十二月末의十億六千八百萬圓이고 最低는七月末의 九億二千四百十七萬圓이엇다

昨年末國債現在額 百六十億突破

內國債 一四十九億圓

大藏省發表=十二月末國債額은如左하다 (單位千圓)

	十二月中發行	十二月末現在額
五分利公債	—	[illegible]
甲號五分利國債	—	[illegible]
第一回四分利公債	—	[illegible]
第二回四分利公債	—	[illegible]
四分利公債	—	[illegible]
三分半利公債	[illegible] 未滿	[illegible]
四分半利國庫債券	—	[illegible]
四分利國庫債券	—	[illegible]
三分半利國庫債券	—	[illegible]
支那事變國庫債券	[illegible]	[illegible]
支那事變特別國庫債券	[illegible]	[illegible]
內國債計	[illegible] 未滿	[illegible]
第一回四分利付英貨公債	—	[illegible]
第二回四分利付英貨公債	—	[illegible]
五分利付英貨公債	—	[illegible]
六分利付英貨公債	—	[illegible]
五分半利付英貨公債	—	[illegible]
南滿洲鐵道株式會社英貨社債	—	[illegible]
計(英貨債)	—	[illegible]
六分利付米貨公債	—	[illegible]
五分半利付米貨公債	—	[illegible]
計(米貨債)	—	[illegible]
四分利付佛貨公債	—	[illegible]
外國債計	—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未滿	[illegible]
外에大藏省證券	—	[illegible]
米穀證券	[illegible]	[illegible]
糧絲證券	—	[illegible]

總督府主催 代用品展覽會

四月부터各道에서開催

物資動員計畫과 倂行하야 代用品工業의 振興策이 去益重要性을 加하고잇는데 總督府에서는 全朝鮮的으로 代用品의 生産及使用을 勸奬할目的으로써 代用品 工業振興 展覽會(經費一萬圓)開催를 企圖하고그準備를 急히하고잇는데 드디어 四月一日 京城을爲始하야 全朝鮮道廳所在地를 主로 左記日字로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는바 開催地及 日字는如左하다

京城(四月一日부터五日까지)
淸州(〃 十日—十二日)
大田(〃 十七日—十九日)
全州(〃 廿四日—廿六日)
光州(五月一日—五月三日)
大邱(〃 八日—〃十一日)
釜山(〃 十五日—〃十八日)
海州(六月十八日—〃二十日)
平壤(〃 廿五日—廿八日)
新義州(七月三日—〃五日)
咸興(六月一日—〃三日)
羅南(〃 八日—〃十日)
春川(五月廿五日—廿七日)

또右展覽會에는 昨年末까지內地各地에서 開催하야 好評을博한商工省主催의代用品展覽會에 出品되엇던 重要資料의 貸與를바더 이것을展示하고 內容의充實을期할豫定으로 目下拓務省을 通하야 右資料의貸與를懇請하야 이미商工省間에 大體諒解가成立되엇스므로 當省自慢의 優秀한資料의展示에依하야 朝鮮의代用品工業의振興이 一段促進될것으로 크게 期待되고잇다한다

京城鐵工、京畿煉瓦 兩工業組合結成

工業組合令施行으로 因하야 燐寸其他各方面에 工業組合의設立이 準備되어감에도 不拘하고 [illegible]

鮮銀支店網整備

道廳所在地에新設

鮮銀은 咸南咸興에 支店을設置하기로하고 이미總督府의認可를어더 目下開設準備中인데 營業은 六、七月로될豫定이다 그리고 鮮銀으로서는 朝鮮內의 支店網을 擴充整備하는 計畫案을 研究中인데 于先道廳所在地에 支店을 設置할것을 目標로 海州, 大田, 光州의 三都市를 次期開設地로서 選定하고잇다 또此等支店의 設置는 他의 銀行과의 摩擦이생길 念慮가 잇는데 鮮銀으로서는 營業方針에 잇서서 極力이것을 避할方針을 取할터이라한다

漢銀特融

根本的整理

漢城銀行에서는 野田頭取의新任을 機會로 同行의商으로되어잇는 特融의 根本的 整理에着手하기로되엿다 目下整理案을 研究中인데 現在同行의特融은 아직四百萬圓未滿이 남어잇는바 結局此中에無利子의것及二分乃至三分의 利子付債務를一括하야 漸減코저 藏相에要望하기로모양이나 此案은 前에 配當復活時에 大藏省에서 拒絶한 前例가잇스므로 그 折衝에對하야는 자못難更을期하고 鮮銀을通하야 工作을進行하지안흘가 하고보인다한다

寸鐵

▼…高物價抑制政策이 强行되나 物價指數는 다시上向步調

▼…事變前과 比較해서 아직도 總平均二割高

▼…이것은 어떠케事變前 物價까지 引下시키려는지? 아득한일

▼…油肥聯은 産地第一主義를 버리고 內鮮摩擦을 緩和하라고

▼…摩擦除去는 조흐나 그때문에 犧牲되어서는不可

▼…時代의寵兒 스·파의 生産高는 一躍世界의 王座를占케되엇다고

▼…數量보다도 品質의 改良을 힘씀이 若何 그래야정말『스·파』時代가올것

▼…鮮銀은 支店網을 擴充할 計畫이라고

▼…道廳所在地인 各主要都市에 지금까지 中央銀行인 鮮銀의支店이 업섯던것이 창피하엿던일

市場六感

株……今週間을 꾸준히漸騰이드니 今朝는 드디어東新一三〇을示現하고 鐘新도 七十九圓臺를突破◆實로功는辰이라할만한것◆오르고보면 누구나强氣가勇하나 過去에잇서서下落이激烈하던데比하면 騰勢는너무나 穩健◆橫說竪說을그만두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株界는 太陽을回復한氣分◆四圍環境으로보아 一方的樂觀을할수도업는데어니◆東新一三〇圓이 目前의 天井이되지나안흘가?

米……昨今米價는株界暴騰의 好感을 受함인가 又는米의直接强材料를 發揮함인가 此에는 斷言할수업는것◆勿論米의事情이야 四圍가無非强材인만큼暴騰할可能性이 잇다고 볼수잇스나 그러나 政府의政策이此를容認하지안흘 모양. 昂騰할自由를 喪失하엿다고 볼수박게◆그럼으로 米界의 어떠한 强材를 利用하야 昂騰한다는것보다도 株界好感에 一刹那의高價를 示함이아닌가◆何如間此海高價에는 硬派의 그自身도 警戒不怠하는光景

株式 夜放高로 暴騰

前場暴騰

今朝는休日을압두고 夜放高로東新一圓八高인一二八圓二 鐘新一圓五高인七九圓四、鐘紡七高인一四六圓四에 活況寄付後 東新은續騰되어 드디어一三〇圓關門을突破하고 一三〇圓一의 近來의高價를示現하얏스며 鐘新도七九圓七 鐘紡은一四七圓까지 上昇된後 高價에는利喰物이나와 結局東新一二九圓八 鐘新七九圓一 鐘紡一四六圓九에大引 後場은例休

東新百三十圓

今週에들어오자 連日步一步漸騰氣勢를보이어 市勢에 活氣를注入하고잇드니 昨日에이르러서는 騰勢一服이나 氣配가 依然强하야 一般의期待를 주고잇든바 드디어 今朝에이르러 東新이先驅高로 一三〇圓 關門을容易하게 突破하야 近來의新高價를 示現하고 어에따라 鐘新도八十圓台에 肉迫하는 近來稀有의活況이엇다 今週間을通한 維株一般의好勢, 特히 鐘新의活況이드디어 東新一三〇圓突破를齎來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東新은 一日其實績을보엿다고할수잇겟다 그러나 東新은本來 人氣的變動을만히 하는것으로 單只 雜株高의 支援으로서 一三〇圓臺까지棒上되엇스나 만큼아직 四圍環境이 好轉되엇다고할수는 업는터이다 一三〇圓關門에 目前의天井이되지나안흘가或은 다시 上騰된다하드라도 目前少押은 難免일것이라고보는데果如何?

强氣作戰的中

株式市場은 汪兆銘의 和平提唱以來 平和來待望의 買人氣가擡頭하고잇다 그러데 只今即時平和가 到來할것도 아니고 또平和來實現된대야 統制强化는 難免이라는 一般的人氣의 反面에잇서서 平和氣分은 卽統制緩和를 意味한다는 人氣가잇서 이것이 市勢의 反騰을 助長한것가리도보인다 强氣側은 새로이上場된 鐘新을 煽揚하야 相當한 成果를거두엇는데 鐘新은貿易興國策의 花形株로서 平和가 到來한다면 最先頭에 스게될것이며 鐘新은 새로이 上場되엇스니만큼 取組高도적고低價位에잇다 此間의 事情으로 强氣의 鐘新煽揚은 成功하야 今朝는 八十圓臺肉迫의 氣勢를보이고 東新도 一三〇圓臺로 飛騰이엇는데 如何튼 强氣의 作戰은 的中되엇다고할수잇겟다 이러한 鐘新高 도 이에追隨하는

期米 閑散裡에 少堅

前場少强

今朝는 降雪, 阪地三十六圓三十四錢인 三丁反高를接하고 當은 三圓八十八錢인 二丁高로 中은 賣買不成, 先限은 三十三圓九十一錢인 二丁高로 寄始한後 阪地稍漸高價로 三十八錢 最高로 止場할을伴하야 九節九十四錢으로 三錢에 場을止하엿다

今日의市勢 (十四日)

國債依然閑散保合 (東京電話)

東京債券市場은 市勢에興味를가진 大衆側이 出動하게되면 環境事情은 如何든 어느程度 市場은繁榮하고 市勢도 活氣를띠게될 可能性이 만히잇거나 지금 平凡한 狀態에 잇고도住積極의 再次 聲明이잇는 明에止할뿐으로 卒凡한 狀態에 政界를 踏襲或은 改新한다는風說

米價大勢一考

平沼內閣이 誕生한後 아직一般財界에 刺戟을줄만한 何等의 政策을 加하자안코 或은近衛의 政策을 踏襲或은 改新한다는風說의 明에止할뿐으로 卒凡한 狀態에 잇고도住積極의 再次 聲明이잇는 株界는 依然活氣를 帶하야 諸株가 一齊昂騰途程에 入하엿다 就中鐘新은 低價로부터 十三圓의 昂騰을示하고 東新亦十三圓 內外의高價를 示하엿다이러는바람에그餘影이 米界에까지 波及하야 東京은 六圓六十錢臺, 大阪은 六圓三十錢臺로 反騰하고 當地는 三十四圓臺를 突破할形勢를보이고잇다 勿論米界의모든事情으로 본다할지라도 四圍가無非强材뿐임으로 到底히買方針을捨할수업스나 그러나 最高公定價格이嚴存한 以上 東可買進할餘地가업는 熱心强氣라도 用武할 餘地가업다 그러데 問題의 米穀會社案이 今議會에 上程될 可望이엇다는 說이 잇는 그一方으로는 滿算市場의 活氣를도울고잇슴으로 境遇에依하야는 公定米價를 突破할 不得已의 市勢가展開될지도 亦未知일 모양이라고云云 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當分暴騰難期

最近 米界의事情을 綜合하면 産地의貨物이 稀薄한 點으로보아서는 强材로 보지안홀수업고 內地移出이 不振한 點으로보아서는 또한 弱材로보지안홀수업다 그리고 모든物價가 昂騰하고 前途需給難을 免치못할 今年米作의 數字로보아서는 적어도 二、三百丁昂騰할 可能性이 잇다고 볼수잇스나 最高公定價格이란 一大城壁이 橫在한만큼此를 容易히 突破하리라고 말하기 難한狀態이다 그러데 公定價格의 突破與否는 强氣側의 主張에依하면 不遠한時日에 無難히 잇슬것이라고하나 今年의 米作이 又復逕作을 告하기外에는絶

正米 消極態度 同調

京城保合

內地人注材絡과割高로 買氣는안보이나 定期의續騰됨을보고 春高觀이濃厚하야 所持側의 傍觀的態度로 閑散場面이엇다 ㊀穀良三等三三、七〇 四等三三、五〇 一等白米二四、〇〇

仁川不變

正租는割高이며 [illegible]

木浦同調

出廻는四輛으로減少되어 市中은依然히 貨物薄이고 應募米準備가 旺盛할것을豫想하고잇스나 아직買氣는 안보이는 一方內地人注文指價低이어서 傍觀되여 目前朝鮮米時代의到來하기만을 苦待하는態度로 消極的이어서 市勢도同調이엇다 ㊀銀坊主三等三三、七〇 四等三三、五〇 一等白米一四、〇〇

大邱不動

淸算의少展됨을 오래동안 傍觀態度를 絹品 精白 當用側의 休日을압두고 多少買氣가보이나 必需入用買程度 이여서 市勢를움지길만한 積極商談이업서 結局前價同樣이엇다 ㊀穀良三等三三、〇〇 四等三三、〇〇 一等白米一、三五

釜山商盛

昨夕來로指價이나마 內地로부터의 大口的注文이殺到하야 新春以來最初의 大商勢이엇스나 겨우 採算價이어서 結局市勢는 十錢高로 伸力이업섯다 ㊀銀坊主三等 三三、八五 四等三三、六五 一等白米一三、七八

群山閑散

地方으로부터의 出廻는 十四輛이나 잇스나 모두入庫되여서 依然히 市中에는賣物이업고 內地로부터는 銀坊主三等三三、三〇 四等三三、二〇 一等白米一四、〇〇

今日財界 十四日

海外經濟 (十三日)

銀行券 (十三日)

金利 手形交換

鰯油粕 麥粉

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正租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京城物價 十四日

株式

期米

砂糖

生糸

人絹

棉花

綿糸

[illegible]

可許府 朝鮮總督
金銀 重石
高價買入
休無中年
京城丸金合資會社
京城府鐘路一丁目六九番地
電話光化門③一八七三番
振替 京城72292番
地方는 鐵道便·郵便買入御願

期 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電話 [illegible]

重石·水鉛
金銀 買入
三昌鑛業所
京城府明治町二ノ三番地
電話本局三〇二五番

益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東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